

할렐루야! 온 세상 만물의 생사를 주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늘 주님의 손길로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늘 지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다음세대 전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다음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는 사실 나중 과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과제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이들은 중요한 전도의 대상이다. 전도는 교회 밖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도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이 불분명한 명목상 신자들도 전도의 대상이다. 현재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도 앞으로 성

인이 되면 신앙에 관한 주체적 선택을 해야 한다. 많은 교회에서 경험하듯,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으로, 그리고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할 때마다 아이들이 신앙을 떠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음세대가 신앙을 지속할 것인가 개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과제다.

다음세대를 위한 문화적 맞춤 사역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교회가 지루하고 고리타분해서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 교회를 재미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디즈니 만화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채워지는가 하면, 예능프로나 드라마 콘텐츠를 기발하게 모방한 교회 프로그램 포스터와 문구들이 경쟁하듯 선보인다.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게임이나 운동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주면 미래를 대비하는 과감한 혁신으로 주목받는다. 또는 다음세대 사역을 독립 부서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간섭 없이 안전하게 그들의 예배와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교회가 다음세대를 소중히 여기며 "큰대력"을 포기하는 결단이라고 여기는 목회자들도 본 적 있다. 아예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등과 같은 '교회 안의 교회'를 지향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러한 시도들이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는 필수적 해법이겠냐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신앙의 성숙이 되고 간에 교회가 재미없어 오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하지 않느냐?' 나 또한 다음세대에게 교회가 딱딱하고 지루한 곳으로 비치기를 원치 않는다. 아울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그들에게 무의미한 형식이나 강요 사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교

회의 다음세대 사역이 현대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코드를 창의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신앙의 전수와 성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서구 기독교도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자기반성을 하고 있다. 수년 전 미국의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인 Christian Century에 기고한 한 청소년 사역자는 처음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 맞춤 예배

에 현대적 음악과 (성, 이성 교제, 음주 등의) 흥미로운 주제 토론 및 교육적 게임 등을 도입했으며, 정기적으로 사회봉사나 행사도 기획했다. 이 사역자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대부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안다고 생각해서 주로 기독교 문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자신이 그때 사역했던 청소년들 가운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자신의 다채로운 문화 사역은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다.

(3면으로 계속)



불황: 회개와 정화, 사랑과 나눔의 기회

불경기는 또한 교회와 교회구성원들에게 영적으로도 영향미쳐

코로나 19 팬데믹이 초래한 경기 침체는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깊었지만 가장 짧은 경기 침체였다. 최근 대우행 기간 경제위축이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단 두 달 동안 지속됐다고 결론 내린 미국 경제 연구소의 분석이다.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1.4퍼센트 감소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33.4퍼센트 증가하며 회복되었다.

하지만 불황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일반인들에게 "불황"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경제가 "나쁜 상황"일 때라고 말할 것이다.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그들이 가진 의견은 대체로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 매체의 독자들에게 물어보았다면, 그들은 경기 침체는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하락이란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릴 것이다. 이 정의들은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는 않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회전 주기를 분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검증된 곳은 독립적이고 비영리적 연구 기관인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미국 경제 연구소)의 '경기 순환 측정위원회'이다. NBER는 경기 침체를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하는 경제 활동의 현저한 감소가 있는 기간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경제(일명 GDP)는 경제 확장으로 알려진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기간과 불황으로 알려진 경제 활동이 감소하는 기간을 반복한다. 이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며 확장, 정점, 감소 및 바닥의 네 단계를 포함한다. 확장은 바닥과 정점 사이의 기간이고, 쇠퇴는 정점과 바닥 사이의 기간이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남일현 목사 4면



주성철의 세상보기 주성철 목사 5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발행인 칼럼

나를 잃어버리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사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을 왜 못들어 주겠는가 싶어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사주었다. 아이는 강아지를 참으로 예뻐했고 강아지도 그 아이를 잘 따랐다. 어느 날 그 부모가 외출을 하고 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다. 그들은 집안을 가만히 엿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강아지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고 자기의 아이는 강아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끔 강아지를 기쁘게 하겠다고 아이가 갖은 재롱(?)을 떨고 있으니 부모는 놀랐고 분노했다. 기르라고 사다 준 강아지를 자기 아이가 거꾸로 섬기는 것을 보고 너무나 속이 상했고 한심했다. 부모의 눈에 그 강아지는 더 이상 예쁜 강아지가 아니라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못된 폭군이었던 것이다. 부모는 그 강아지를 쫓아냈고 아이를 그 놀림에서 건져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아이의 서글픈 스토리이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런데 선물인 세상에 찢쩍대며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지실 분노는 얼마나 크시겠는가. 나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 받았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제사장 신분이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다른 신분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밥퍼' 사역의 최일도 목사님 이야기를 그분으로부터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최일도 목사님은 청량리역 부근에서 밥퍼 사역 및 부랑자를 돕는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도망가듯 열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다고 한다. 어느 역엔가 내려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였다. 삼일을 산속에 쓰러져 누워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셨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디선가 밥 냄새가 코끝까지 번져왔다는 것이다. 냄새를 따라 가보니 어느 노인께서 풍로에 밥을 짓고 있으셨던 것이다. 그 노인에게 밥을 달라고 하여 조금 얻어먹다가 그 노인에게 욕까지 얻어먹으셨다고 하였다. '너 같은 녀석은 청량리에 최일도 목사를 찾아가야 해. 거기 가면 실컷 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 최일도 목사님은 청량리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되뇌셨다고 한다. '내가 바로 그 최일도 목사인데. 내가 최일도 목사를 찾으러 가다니. 이게 뭐야? 아~그렇다. 나를 찾아야 한다. 이제라도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한다.'

며칠 전 교회 권사님이 새벽에 방에서 뒤로 쿵 소리를 크게 내며 넘어지셨다. 주무시던 남편 장로님이 깨어 다가가 일으키셨는데 환동안 권사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단다. 병원으로 급히 가시는 것은 그렇다 해도 권사님이 다시 기억을 찾으시기까지 장로님이 얼마나 놀라셨겠는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게임 중 많이 불렀던 노래이다. 이런 질문에 '나~는~' 라고 대답한다.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나 자신이다. 내가 누구인지 대답 못 해서야 되겠는가. 나를 잃어버리는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TGC, "일을 제때 못 끝낼까 봐 걱정이예요"

'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있을까?' 불안감에 가슴이 떨린다. 문제는 이런 걱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열심히 일하라고 재촉하는 문화, 더 많은 일을 해내라고 부추기는 문

화에서 업무가 주는 불안은 이제 아주 흔한 감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폭풍우 몰아치는 스트레스의 바다에 좌초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에 대한 불안은 종종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할 일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집니다. 압박한 마감일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뻘뻘합니다. 마쳐야 할 일이 가져온 공포감에 짓눌려 목숨 깊이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실망을 안겨줄 대상은 상사나 고객, 나아가서 나 자신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각종 생산성 관련 서적을 읽고 또 업무와 관련한 팟캐스트도 듣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의 결점일 뿐입니다. 상황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견디기 힘든 불안이 나를 감쌉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감정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익숙하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재촉하는 문화, 더 많은 일을 해내라고 부추기는 문화에서 업무가 주는 불안은 이제 아주 흔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폭풍우 몰아치는 스트레스의 바다에 좌초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맞는 내러야 할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돕는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고정된 진리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받음으로써 일은 힘든 노동이 되었습니다. 꿈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게, 가시와 엉덩퀴의 찌름입니다. 그래서 종종 모든 수고와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모든 노력이 좌절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비록 이런 모든 현실이 다소 실망스러운 진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헛된 꿈을 좇지 않도록, 또한 실현되지 않은 꿈에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습니다. 일과 관련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저주의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은 우리가 희망을 품고서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의도한 시간에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무한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자존심이라는 교만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피곤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쉬운 나의 죄된 본성은 여지없이 나를 또다시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키울 수는 있지만, 결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장은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처럼 나의 안전을 흔드는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확신했던 것도 달라지곤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당신이 주의 몸의 영광스러운 지체로서 그와 연합한다면, 당신의 정체성과 신분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지혜

업무 관련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습관과 관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뽑은 두 가지, 그리고 성경 밖에서 찾은 두 가지, 모두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규칙적으로 쉬어라.

직장이 주는 압박감에 압도된다면, 쉴 마음이 아예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쉬도록 설계되었기에, 쉬어야 합니다. 1마일이나 되는 할 일 목록이 있을 때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쉼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일은 단지 일에 불과하다는, 합당한 위치에 일을 두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복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렙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살렙 벨엘 교회는 ARP 교단 제1회 노회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렙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27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차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 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 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 자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 포함),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목사 안수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설계영상
원서 접수 마감일: 2023년 7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들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렙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구독 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유럽 남미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월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323)665-0009, (213)674-7982
Tel (718)886-4400
E-mail lachpress@gmail.com
E-mail nychpress@gmail.com

다음세대 전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1면에서 계속)

이 사역자는 자신이 아이들의 관심과 기호에는 민감했지만, 아이들이 평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역점을 두지 못했다고 솔직했다.

꽤 오래전부터 교회학교 사역에서 중요한 과제는 교회 전체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느냐가 되었다. 성인 회중과 분리된 독립적인 다음세대 사역은 한동안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아이들 자신이 성인으로 자라면서 원 교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들은 성인 회중과 자주 접촉하고, 성인 예배 또는 세대통합 예배에서 봉사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조사가 있다.

30년간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일한 바 있는 역사신학자 토마스 버글러는 The Juveniliz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미국 기독교의 청소년화)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의 연구를 통해서 미국 기독교가 시대의 청소년, 청년 문화를 수용하고 모방함으로써 신앙의 전승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목하는 오늘날 청소년문화가 교회에 스며든 현상은 낭만주의나 정서주의, 즉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데서 교회 분위기나 프로그램의 의미를 찾는 현상이다. 이는 복음 메시지의 연성화를 초래하는데, 예를 들어 "예수, 나의 연인" "나는 예수와 사랑에 빠졌다" 같은 표현들이나, 신앙생활에서 성화나 제자도보다는 선택이나 '여행'(journey)이 더 중요한 개념이 된 것이라 한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영적인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소비심리를 만족시키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문화적 적응력은 항상 매력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의 대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문화를 교회에 접목한 대표적 사례인 윌로우크릭교회 사역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제자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고백한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현대 대중문화의 가벼움과 신속함은 강한 휘발성을 지니고 있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스쳐 지나가게 만들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에 둘러싸인 아이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민하고 성찰하게 하기보다, 통속적인 마블 영화 세계관의 유사품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기프트폰을 제공하며 교회 출석이나 성경 읽기를 유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소비주의 문화의 이해관계로 인식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데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그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앞선 세대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신앙훈련을 의욕 없이 하며 순종과 성숙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러한 퇴행적인 방법은 더더욱 아

니다. 여전히 문화는 중요하다. 문화는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외피이자, 내용을 이해시키는 소통 창구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신앙의 표현과 대화는 사역자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대중문화가 문화의 전부 아니며, 사역에서 문화를 적절히 활용하는 데 필수 통로도 아니다. 물론 현재 대중문화의 흐름과 언어를 잘 알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접촉점을 갖고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도 영적인 탐구자라는 것, 그리고 기성세대는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다음세대의 아이들도 영적 관심과 열망을 지닌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영적 관심이란 종교활동에 대해서라기보다 삶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와 같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왜 다음세대

대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신앙의 성숙과 헌신에 이르게 한다고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의 신앙 교육을 하면 오히려 그들을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 교회와 신앙에 관해서 아이들이 제기하는 의문과 비판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대한다면, 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며 결국에는 신앙에 더욱 긍정적이 될 수 있다(Vern Bengston, Families and Faith). 다음세대는 전도의 대상일 뿐 아니라 환대의 대상이기도 하다. 환대라는 단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음세대의 아이들을 환대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세대로 신앙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믿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된 곳에서 신앙이 잘 계승된다고 한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거나 의심에 대해서 질타하고 정죄한다면



의 아이들은 가벼운 재미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가정의 청소년들 대부분은 부모의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며 알고 싶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 치료주의 이신론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Christian Smith, Melina Lundquist Denton, Soul Searching). 신앙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혹은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긴급한 과제는 다음세대 아이들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필자가 교육목회를 할 당시에 동역자들과 함께 개신교 영성수련원을 다녀온 적이 있다. 얼마 뒤에 여류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그때 담당 전도사가 아이들을 위한 목상기도 훈련을 시도했다. 영성수련원에서 경험했던 미로기도를 아이들에게 적용한 것이다. 아동부실에 기도코스를 만들어 놓고 천천히 걷다가 한 번씩 멈춰서 기도하는 방식이었는데, 아이들이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에 필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 무슨 예능적 요소는 가미되지 않았다. 다만 곁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교사들이 있었을 뿐이다.

둘째,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존중하고 환

오려 신앙에 대한 반발과 이타를 불러일으킨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이해와 관용 속에서 신앙에 관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가정예배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성경읽기와 기도생활도 유익하다. 하지만 그 조차도 신앙에 관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보장되는 가정에서 그러한 경건의 훈련도 더욱 효과적이다.

최근 한국 기독교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교인들의 최초 신앙 시기는 모태신앙(26.4%)과 초등학교 때(34%)까지 합하면 60.4퍼센트에 이른다. 여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신앙을 가진 이들까지 더하면 그리스도인의 무려 78퍼센트까지 미성년 때 신앙을 갖는 것으로 나온다(한국기독교교육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23). 이 통계는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다음세대의 영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다음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는 사실 나중 과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과제이다. 그들은 다음세대가 아니라 지금세대이다. 그들을 위한 사역은 더욱 면밀하고, 더욱 반성적이고, 더욱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

시론

휴먼혁명보다 생명혁명을!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치아에 문제가 생겼고, 빨리 임플란트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임플란트 기술 비용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 며칠 미루다가 친분이 있는 선배인 치과외과사를 찾아가 소견을 부탁했다. 2nd opinion. 오랜 임상경험을 갖고 있던 선배는 전혀 다른 소견을 제시했고,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무려 22년 전 일이다. 기존 치아의 뿌리를 살리면서 정성스레 치료해준 그 치아들은 아직도 내 입안에서 잘 활동하고 있다.

임플란트라는 기술은 원래 '장기나 장치를 몸속에 심어넣는 기술'을 뜻하는 의학용어로 치과에서는 '턱뼈에 치아를 심는 작업이나 그렇게 심어진 인공치아'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말 그대로 im(안데다) + plant(심다)의 합성어로 문제있는 기존 치아를 제거한 후 티타늄(titanium)으로 제작한 보철물을 치조골(잇몸뼈)에 심어서 치아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즉, 중요한 점은, 기존치아가 없는 상태의 잇몸에 근원 역할을 하는 뿌리부터 인공적으로 치아를 만들어 심어주는 기술이다.

2년 전인 2021년, 이런 영상이 소개되었다. 아홉 살짜리 원숭이가 왼손에는 빨대, 오른손에는 검은색 조이스틱을 잡고 화면을 쳐다보면서 컴퓨터 탁구 게임을 하는 이 영상은 원숭이의 뇌에 심은(implant) 2개의 컴퓨터 칩을 통해 원숭이의 뇌속 모든 정보로 컴퓨터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탁구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뉴럴링크'가 개발한 이 기술은 이를 토대로 "뇌에 이식된 칩으로 뇌와 척추 부상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잃어버린 뇌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DA(미 식품의약국)에서 인간의 머리에 이 칩을 이식하는 '뉴럴링크'의 이 실험을 승인해주지 않아 연구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달 전인 지난 5월 드디어 FDA가 이 실험을 승인 해주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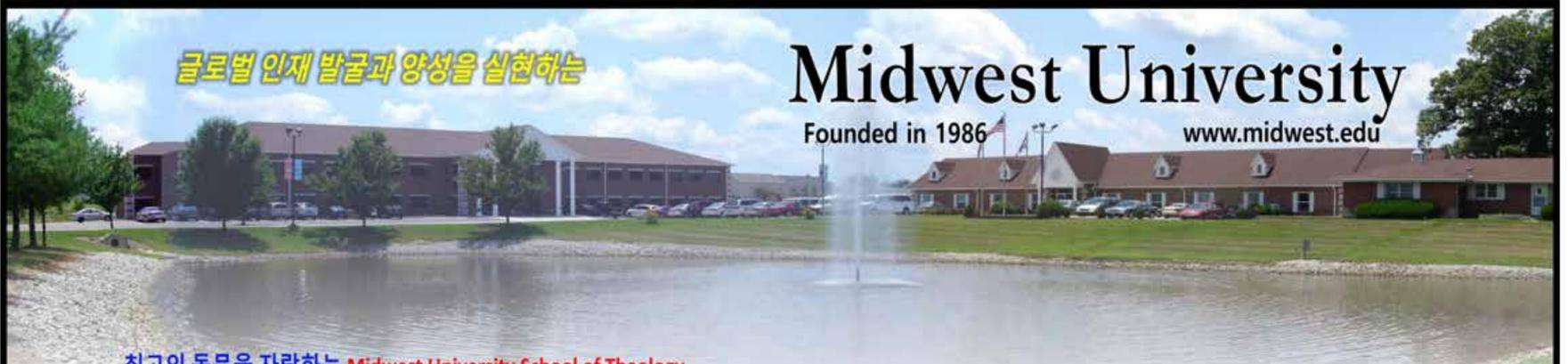
임플란트 개념의 첫 단계가 이미 대중화되어 우리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애플워치이다. 그 기술은 그동안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인간의 뇌에도 칩을 심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뉴스기사는 '휴먼혁명'이라는 용어를 덧붙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머리카락 20분의 1 두께의 얇은 실 모양의 전극 1000여 개를 연결해 만든 이 칩은 뇌의 신호를 읽어내면서 마침내 'BCI(Brain-Computer Interface)'라는 작업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없어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의술개발까지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휴먼혁명의 개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요약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한 어린아이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있는 광경이 떠오른다. 예수가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는 방법으로 눈이 뜨여진 아이였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아이가 눈을 뜬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진 관심의 초점은 예수를 죽이려는 꼬투리를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관심은 이 아이의 인생에 빛을 주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빛을 주는 일과, 빛을 막고 있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의 말을 불쌍한 한 아이에게는 빛을 주신 것이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요 9:39)"

머스크가 "선천적 시각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등을 비롯해 루게릭병 같은 퇴행성 질환을 겪는 환자들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휴먼혁명이 선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더 나아가고 좋아지는 혁명적인 혜택이 아니라 그 후의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는 휴먼혁명보다 먼저, 더욱 깊어가고 무디어져가는 이 세상의 죄를 이기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하는 생명혁명의 이야기라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djee7777@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오판

사람은 하루에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설 새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하느냐는 중요하다. 세상에서 막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전쟁의 영웅 시이저의 아내는 그가 암살당하기 전날 밤에 꿈자리가 굉장히 심란했다고 한다. 그래서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는 남편을 배웅하면서 지난밤에 꿈자리가 좋지 않았으니 조심하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경호원 없이 원로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가던 중 인사를 하는 척 다가온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가 그렇게 죽지 않았더라면 역사의 물줄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어제 밀비오 다리를 방문했다. 그 다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게 했던 현장이다. 즉 이곳에서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250년 동안 억압했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멈추게 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312년, 10월 28일, 로마의 황제 막센티우스와 게

르만 장벽을 책임진 황제 콘스탄틴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수적으로 콘스탄틴 황제는 절대적 열세였다. 막센티우스는 18만5천 명이었고, 콘스탄틴은 5만 명의 군사를 대동한 전투였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의 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구나 막센티우스는 로마의 황제였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 전날 밤에 콘스탄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몰살당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미트라)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것이다. 잡자리에서 뒤척이던 중, 이 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놀라운 환상(꿈)을 보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그리스투스라는 머리 글자였다. 이튿날 그는 그리스투스라는 기를 만들어 전투에서 그 기를 앞세우게 했다. 첫날은 탐색전이라 승패 없이 끝났다. 그러나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였음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밀비오 다리를 배경으로 포진하고 있던 막센티우스 황제는 돌연 명령하기를 다리를 건너가서 테베강을 전면에 두고 진지를 형성하라고 했다. 마치 6,25전쟁 시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군과 유엔군이 강을 앞에 두고 공산군을 상대했던 전술처럼 말이다. 그런 오판을 왜 했는지 모른다. 절대적 수적 우위에서 말이다. 그런데 당시의 다리를 현재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다리

의 길이가 170여 미터고 폭은 7미터가 채 안 된다는 점이다. 그 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후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비좁은 다리라는 점이다. 그런 비좁은 다리로 18만 5천명의 군대가 급하게 적의 면전에서 건너간다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가 아닐 수 없다. 왜 그런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 적 앞에서 다리를 건너간다는 것은 일종의 후퇴다. 뚝개 앞에서 도망가면 물러고 공격하는 데 하물며 치열한 전투에서야 얼마나 더할까? 결국 그 좁은 다리를 서로 먼저 건너가기 위해 병사들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막센티우스 군에는 말을 탄 기병들이 1만 5천 명이나 있었다. 저들은 서로 먼저 건너려고 다투다가 좁은 다리의 난간이 무너져 내렸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완전 무장한 채로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더군다나 다리에서 강물은 몇십 미터에 이르는 높이였다. 그런 중에 황제 막센티우스도 강물에 빠져버렸고 무장한 무개로 인해 허우

적거리고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전쟁은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다. 치열한 전쟁을 예상하여 승리가 어렵겠다고 여겼던 콘스탄틴에게는 놀라운 황제가 아닐 수 없었다. 마치 치열한 경기에서 기권을 얻은 것처럼 되었다기 때문이다. 이런 승리를 통하여 이제껏 섬겨오던 태양신으로부터 180도 돌아선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급기가 313년, 당시 동 로마 수도였던 밀라노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위한 칙령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매일처럼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고로 우리는 매순간 오판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지금 푸틴이 핵을 사용하려는 오판에 나서지 않기를 기도한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남일현 목사
(든든한 교회)



시편 141편은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여 그 사건을 회상하며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온 그 사건이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준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도망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란 때에 필요한 첫 번째 기도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3절. 쉽게 말하면 말조심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나쁜 신앙생활

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욥은 정말 온전한 사람인데 너무나 억울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한 고난 앞에서 욥과 그의 아내가 보인 반응은 전혀 달랐죠.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장 인

정말 배가 고프면 평소에는 정말 손이 가지 않았던 음식도 일단 보이면 집어서 먹게 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당시 다윗은 동굴에서 지냈는데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서 지냈죠.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잡힐까 봐 떠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수성찬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처지가 정말 궁하면 양심이 되고 원초적으로 행동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생계형 범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

기도입니다. 5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는 의인의 말을 들으면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게 받겠다는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열겠다는 것이죠. 환란을 당하면 사람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습니다. 환란을 당하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란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듣고 싶은 말에는 귀를 열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에는 귀

를 닫습니다. 비록 나란의 말을 들을 때에는 속이 쓰렸겠지만, 그는 귀를 닫지 않고 귀를 열었죠. 귀 관리가 잘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른 말인 줄 알면서도 귀를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적인 권면을 들었음에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귀 관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떠신 말씀인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착각해 귀를 닫았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이지만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들을 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속이 쓰리더라도 귀를 열어놓길 바랍니다.

환란 때에 필요한 기도

시편 141:1-8

을 열심히 했는데도 환란을 당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입으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을 지킨다는 의미는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닫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도 환란 중에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부터 나올 테니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편하고 좋을 때 입을 열면 긍정적인 말들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특히 다윗처럼 환란을 당할 때에는 너무 억울하기에 입을 열면 원망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입을 열지 않는 것이고, 최대한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관한 부정적인 말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누군가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죠. 3절을 보면 왜 다윗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겠습니까?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다윗의 입에서도 원망이나 불신앙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파수꾼 여러 명이 필요하겠죠. 잠13: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

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욥2: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다윗도 환란의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환란 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환란 앞에서 내 자신과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입술의 문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환란 때에 필요한 두 번째 기도는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4절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주기도문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죄와 타협하게 하는 유혹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진수성찬입니다. 악인들의 진수성찬이란 악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안락함과 화려하고 육감적인 모든 의식주 생활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도 자신의 생활이 편하고 안락할 때에는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별로 흔들리지 않죠. 지금 내 배가 너무 부른 상태라면 어지간한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스를 맛았죠. 삼상24:3절을 보면 사울 혼자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주그려 앉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상황이라고 권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여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데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했던 것이니 이것은 충분히 정당방위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도 기름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 다윗이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여도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정말 밀바닥에서 사는 상황에서 마음을 굳게 지킨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 마음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란 때에도 마음을 굳게 지키길 바랍니다. 환란 때에 필요한 세 번째 기도는 내 귀를 지켜달라는

를 닫습니다. 하여간 환란 때에는 조금만 아쉬운 소리를 해도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냐고 원망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잘될 것이라는 말에만 귀를 열지,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듣기도 싫어해 귀를 닫는데 그렇게 하다가 더 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윗 주변에는 악인도 있었지만, 의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했고, 의인의 책망은 잘 받아들여려고 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악인은 사탕발림과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들이에 달고 쓴 것이 아닙니다. 달더라도 내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귀를 닫아야 하고, 쓰더라도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귀를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악인이 나에게 하는 말은 결국 나를 해치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 여러 죄들을 저질렀지만, 다윗 주변에는 다윗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영부영 흐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전할 말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귀를 열어서 듣고 회개했

환란 때에 필요한 네 번째 기도는 내 눈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8절. 내 눈이 주께 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극히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이 주께 향하게 해달라는 것은 현실이 편하고 별 일 없을 때 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이고, 다윗의 경우에는 쟁겨야 할 식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수많은 시들을 보면 그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위인이라고 우리와 신앙의 DNA가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신앙의 위인을 만듭니다. 입술, 마음, 귀, 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위인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란 때에도 입술, 마음, 귀, 눈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matthewinam@gmail.com

주성철의 세상보기

주성철 목사
(Pacific Justice Institute,
Korean Outreach Program Director)



이상한 세상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미국이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낳아서 귀하게 키운 아들과 딸의 성별을 교육국과 학교가 무슨 권리로 마음대로 성별을 바꾸고 서류를 고친 단 말입니까? 인간의 성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성스러운 아이들의 교육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교육현장의 성적체성 범치는 자라나는 생명의 싹을 잘라버리는 악의적 범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2세대의 교육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동북쪽 Maine주 통합교육국 소속 한 학교에서 통보를 받은 한 학부모

의 신고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낳아든 통지는 자기의 딸이 남자라는 통지였습니다. 신체적으로 분명히 여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담을 하는 가운데 여자가 남자아이처럼 활동적이라는 이유로 상담자는 트랜스젠더라고 판정을 했고, 학교에서 이걸 받아들여 모든 서류를 남성으로 고친 것이며 이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지역정부를 비롯해서 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들을 압박하고 믿을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졸도할 일입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을 해야 다음 피해자 양산을 줄일 수 있습

니다.

이번 트랜스젠더 사건은 첫 번째로 학부모에게 통보 또는 허락 없이 아이의 성적체성을 변경시킨 것이 잘못입니다. 여자아이가 아무리 활동적이고 남자처럼 행동하여 별명도 tomboy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성적체성 문제 일까요? 10대들이나 젊은이들은 명랑 쾌활하고 감정변화도 심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트랜스젠더라고 판정내리는 경우는 교육국과 교사의 자질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사생활 침해입니다. 이 학생은 성적체성에서 혼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 상담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행동하고 옷 입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학교상담자가 물어봐 불러 상담을 시작하여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는 여자였지만, 남성이었다고 성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사생활보호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공립학교 통합교육국에서 관할하는 각 학교에서 벌어지는 반기독교적인 가정과괴는 당장 이 사회에서 없어야 합니다. 한 인간의 인성을 완전히 망치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만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2년 만에 성경을 일독하고 지금부터 다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여 자식이 뱀에게 임한 저주가 1) '배로 기어다니고' 2) '흙을 먹을 지니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걸어 다녔는지요? 그리고 뱀은 과연 흙을 먹는지요?

- 실비치 이희은

"저주를 받아 기어다니며"
"극히 낮아질 것을 비유"

A: 창세기 3장에는 뱀이 하와를 말로 유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을 우화(fable)라고 주장합니다. 우화인 프로티우스의 예하나 이솝 우화, 로크만의 우화 속에서는 동물들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을 비유(Metaphor, Parable)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고대 유대인의 전통은 뱀을 단순히 인간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악한 충동이라고 말합니다. 뱀은 실제로 그곳에 있지 않았고 인간과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단순히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험을 비유하는 형식의 옷을 입힌 것이고 하와는 자신과 내적 싸움을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우화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며 실제 사건입니다. 뱀은 실제로 에덴동산에 존재했고 하나님께 저주를 선고받았습니다.

칼빈은 "땅의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오직 사람뿐이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 자신의 용도에 적합한 도구가 되었을 때 뱀은 그의 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와는 뱀이 말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특이하게 여겼고 비길 데 없는 막대한 욕망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첫 번째 저주를 살펴보면 과거 에덴동산의 뱀은 오늘날과 같이 배로 다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기어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뱀은 오늘날처럼 흥악하게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뱀이 오늘날처럼 흥악했다면 하와가 접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뱀은 미남 배우처럼 모습도 아름다웠을 것이고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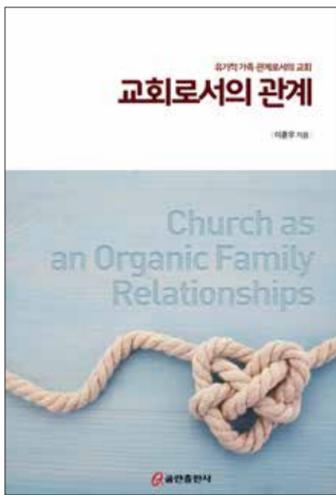
두번째 저주로 창 3:14절 말씀처럼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라고 하셨는데 오늘날의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고로 이 문제를 박윤선 박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뱀이 흙을 먹을지니라"고 한 말씀은 뱀이 저주를 받아 극히 낮아질 것을 비유한 것이다. 뱀이 배로 기어다닐 때 흙이 그 입으로 들어갈 때도 있을 것이다. 뱀은 그렇게 비천한 자리로 떨어졌다. 그러므로 창세기 3:14절의 의미는 뱀이 항상 흙을 식물로 먹으리라는 것은 아니다. 뱀에 대한 바른 해석은 이 뱀이 실물이면서 마귀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참조: 개혁신앙 103호 P. 105) 범죄로 타락한 사단은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 내릴 수 없었고 혼자 망하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그분의 형상으로 빛나는 인간을 자신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새책소개



이훈우 목사(핍 선교회 대표)

교회로서의 관계



핍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훈우 목사가 유기적 가족 관계로서의 교회란 부제목을 단 '교회로서의 관계'(흙난출판사)를 출간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에 따라 가족 공동체의 구조와 생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제언하며 "관계의 변화는 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가족과 교회에 고통을 준다. 관계의 문제와 갈등을

기적 가족 관계로서의 교회', 제 2부 PIMC COFR 정체성에 관한 현상연구 제 4장 '현장 연구 방법' 제 5장 '현장 연구 자료 분석결과', 제 6장 '예리적 관점에서의 자료분석에 대한 논의', 제 3부 COFR정체성 형성을 위한 전략과 적용 제 7장 'Church-TACO전략', 제 8장 'Church-TACO의 적용'으로 구성됐다.

김영진 박사(아시아기독교연구원 원

"관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유기적 가족관계로 전환하고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라고 수록했다.

본서는 제 1부 COFR의 문헌 연구 1장 '유기적 가족 관계에 대한 사회 과학적 이해', 제2장 '유기적 가족관계에 대한 신학적, 선교적 이해', 제 3장 '유

장)는 추천사를 통해 "'교회로서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철저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관계는 축복의 도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고의 수단이라는 사회과학적 이론과 신학적, 선교학적 의미를 내놓았다"고 치하하며 "이 책의 가치는 Church-TAC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 하도록 돕는다"고 평했다. 이 외에도 허창도 목사(실크웨이브 미션 청년선교 및 예배담당), 신동철 목사(나성한인교회) 등이 사역자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했다. 책 구입에 관한 문의는 pimission2004@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동부(NY, NJ)교회</h2>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 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은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5-2594, www.kccb.org 14 G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창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516) 520-2004 www.gcmny.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 Fax: 겸용)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양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 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516) 387-9940, 9942(EM), www.pc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매일 저녁 금요일 오후 8:00</p> <p>Tel: (718) 706-0100, www.nypc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h4>뉴욕요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p> <p>Tel: (718) 762-2525, 5756, www.nyoschn.org 42-15 168th St., Queens, NY 113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창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금요예배: 오전 5:40(화-금) 새벽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늘기쁜교회</h4> <p>담임목사: 김홍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p> <p>Tel: (718) 359-0691, www.jgchurch.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들만 참여: 매주 토요일 오전 9:30</p> <p>Tel: (718) 229-2888, www.nyba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1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o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대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h4>온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월-토) 02:16:00</p> <p>Tel: (845) 359-149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cco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6:00 (월, 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갖게, 셋째, 다섯째, 일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 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30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윤.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www.bronetogarden.org 28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N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 6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lcail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법선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 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빈 그릇이 되라

성경에는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다. 기적(奇蹟)과 이사(異事)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 대부분은 상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것들이다. 그런 내용들은 거의 하나님의 섭리와 피조물들에 대한 교훈이 담겨있다. 왕하 4:1-7을 살펴보자. 선지자의 여러 제자 중 하나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 남편이 빗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빗쟁이가 두 아들을 빗 대신에 데려가 줌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것은 오직

기름 한 병뿐이라고 했다. 이를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니 그가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고 선지자는 그 기름을 팔아 빗을 갖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가난한 여인의 집에 남은 기름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들은 꽤나 많았을 듯하다. 빗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빗을 갖고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름을 담았

을 분량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교훈은 적은 분량의 기름이 많은 그릇에 가득 채워질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의 이해부득(理解不得)인 말에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도 아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집에 있는 그릇들을 빌려준 이웃들! 그들의 마음가짐이다. 당시의 그릇은 거의 질그릇이었을 것이다.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 질그릇이다. 그 질그릇들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는 모르나 아주 작은 질그릇이 깨졌다 해도 그 여인의 형편으로는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그릇들을 빌려준 이웃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 여인의 이웃들도 다 가난했을 수도 있다. 빗을 갖지 못해 아들을 빼앗길 처지의 여인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때일지도 모를 돈을 기꺼이 빌려줄 만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빈 그릇들을 빌려오는 데

는 성공했다. 여인이 빌려온 그릇들이 다 잘 때까지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 양은 빗을 갖고도 남아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이었으니 말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빈 그릇이다. 그 빈 그릇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은 현실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그 여인과 두 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은 그 무엇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빗쟁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 빗을 담갑도록 하실 수도 있었고 누군가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빗을 대신 갖아주도록 하실 수도 있으시리라. 하나님은 오직 그 자신 한 분만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매체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곤궁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용한 매체가 바로 빈 그릇이었다. 비

어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기름이 채워질 수 있었고 그 기름을 팔아 위기를 넘기며 더하여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기독교인은 세상에 대해 기꺼이 빈 그릇이 되어야만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곳이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이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에 대해 택하심을 받은 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담을 그릇!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담을 그릇!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 빈 그릇에 담겨질 것은 사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엡 4:11).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갠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

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1-3)고 권면한다. 바로 빈 그릇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다.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직 그릇을 만든 이만 안다. 금은보화로 만들었어도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고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이 된다. 흙으로 만들었어도 거기에 복음을 담으면 기쁜 그릇이 되고 사랑을 담으면 사랑 그릇이 되는 것이다. 여인의 이웃들이 빌려준 빈 그릇들이 그 여인을 구원할 그릇이 되었듯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세상을 담을 빈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빈 그릇이 되기를 더욱 힘쓰자.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日 대학도 '저출산' 위기... 2040년 내 240곳 사라진다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에 있는 교야이학원 마에바시 국제대는 학생 수 약 1000여명의 작은 대학이다. 1999년 개교해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학생 중심의 지역 밀착형 정책을 펴며 군마현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마중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기업과 시청에서의 반년간 취업 체험, 기업 해외 지점에서의 연수 등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매력을 어필했다. 그 결과 한때 200명의 입학정원을 299명으로 늘릴 정도로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며 이전 상황이 달라졌다. 이 학교 총장인 오모리 아키오는 "이젠 개별 대학의 자조적 노력만으로는 살아남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77만747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명을 밑돈 건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40년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신입생 최대치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는 앞서 일본 중앙교육심의회(중교심)가 2018년 학령인구 추계를 내며 예측한 88만명을 크게 하회한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한 이들은 78만1000명이다. 2040년까지 대학이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면 지난해 출생한 아이들이 전원 진학해도 2만명이 부족하다. 중교심이 예측한 대학진학자는 57% 수준으로 약 44만 명이다.



역원) 이상의 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받아 운영해왔다. 하지만 사회보장 관계비 등 증가로 국가 재정에 여유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4년 만의 파리 에어쇼 계기로 유럽 20개국 국방장관 '유럽 방공' 논의

세계 최대 항공 전시회인 파리 에어쇼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열렸다. 이를 계기로 유럽 20개국 국방장관이 프랑스에 집결해 유럽 영공 방어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 가운데, 프랑스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방공 전략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9일 프랑스 파리 북부 외곽에 있는 르부르르공항에서 파리 에어쇼가 개막했다. 파리 에어쇼는 격년으로 열리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취소돼 4년 만에 열렸다. 25일까지 이어지는 파리 에어쇼에는 최소 158대의 비행기와 헬기, 드론 등이 전시되며 약 32만명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추측은 예상하고 있다. 파리 에어쇼 개막 첫날부터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는 인도 저가항공사 인디고로부터 여객기 500대를 주문받는 등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따냈다. 한국 기업 중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이 참가해 부스를 열기도 한다.

한편 파리 에어쇼를 계기로 이날 오후 유럽의 영공 방어 계획 등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프랑스가 주최하는 회의에는 영국, 독일, 스웨덴,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유럽 20개국 국방부 장관 또는 다른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네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유럽이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독자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시급해졌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 영공 방어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FT는 "프랑스는 유럽의 방공망을 구축하려는 독일 주도의 계획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이 러시아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독일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유럽 영공 방어 계획'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 방산업체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관광·게임에 오일머니 '핑퐁' ... '소프트 파워' 키우는 사우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에 '#비지트사우디(VisitSaudi)'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홍해 위 요트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사진을 올렸다. 개인의 감동적 순간을 기록한 순수한 행위처럼 보였지만 이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맺은 계약이 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메시가 사우디 관광청과 3년간 최대 약 2500만 달러(약 320억원) 규모의 홍보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보도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메시는 매년 1차례 이상 가족 여행을 하고 SNS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조건으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1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는 게임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PIF의 게임 자회사 사비 게임스 그룹은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일본의 닌텐도, 미국의 일렉트로닉아트스(EA), 중국의 e스포츠 기업 VSP, 스웨덴의 게임 퍼블리싱 회사 엠브레이서 그룹 등의 지분을 매수해왔다.

사우디관광개발기금(TDF)은 자국을 관광 명소 만들기 위해 사우디의 호텔·리조트 브랜드인 '하비타스'를 확장하는 데 15억 리얌(약 5조1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투자했다. 사우디는 최근 두 번째 국제 항공사 '리야드 에어'도 설립했다. 현재 건설 중인 킹 살만 국제공항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억2000만명의 승객을 100개의 목적지로 수송하는 것이 목표다.

사우디의 영향력은 골프, 축구 등 스포츠에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 PIF는 사우디 국내 리그인 '사우디 프리미어리그(SPL)'을 유럽 10대 리그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아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 등 유명 선수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는 지난 7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전격 통합을 발표했다. 소프트파워 전략은 미래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해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스포츠 워싱(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세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단체 '아랍세계의 지평을 위한 민주주의' 사라 레아 휘트슨 이사는 "2018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이후 일부 미국 기업이 사우디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자 그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위

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스위스, 탄소배출 제로법 통과... 美, 기후 대응에 7600억 투자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막대한 피해가 보고되면서 각국에 대해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가 '기후 및 혁신 법안'이 이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9.1%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넷제로)'를 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가스·석유 난방 시스템을 히트펌프와 같은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에게 10년 동안 32억 스위스프랑(약 4조5868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기후법안은 2021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부결됐다가 최근 다시 제출됐다. 찬성 측에서는 "부유한 국가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이 법이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위스의 평균 기온은 지난 150년 동안 전 세계 평균의 두 배인 2.5도 상승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세계자연기금(WWF)은 "이번 투표 결과는 스위스 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 해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후법안에 담긴 내용이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를 방문해 6억 달러(약 7692억원) 규모의 기후 관련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5억7500만 달러는 폭풍 해일, 홍수 등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도 약 1700만 달러가 투입된다.

호주에서는 정부가 계획한 넷제로 도달 시점을 계획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WWF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2005년 탄소 배출의 90%를 감축해야 한다. 연구를 진행한 기후 자원(Climat Resource)의 말테 마인하우젠 부교수와 제메디 니컬스 박사는 "넷제로 시점은(정부 계획보다 10년 이상 빠른) 2038년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GC, "일을 제때 못 끝낼까 봐 걱정이예요"

(2면에서 계속)

2.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급자족을 갈망할수록 불안감도 지속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종일 쉬지 않고 기도를 연습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상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시간에 하는 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차에 오를 때, 정오에, 회의 직전에, 프로젝

트를 검토할 때, 기도가 굳어지고 유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순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지체가 필요합니다. 제발 좀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세요."

3. 정기적으로 "두뇌를 비워라."

당신이 나와 비슷하다면, 똑같은 일, 압박감,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마음을 맴돌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씩 다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또는 누군가에게 숨기지 말고 털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불안의 주기가 중단됩니다. 머리를 비우는 건 새로운 관점을 가지므로 진짜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4. 집중 시간을 적용하라.

집중 시간을 알도록 한 칼 뉴포트(Cal Newport)와 그의 뛰어난 저서 딥 워크(Deep Work)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멀티태스킹은 대개 역효과를 낳습니다. 서로 다른 프로젝트, 이메일, 대화 사이로 계속해서 주의가 흩어지면, 작업 능률은 떨어집니다. 다시 집중하는 데에만 시간이 걸리므로 계속해서 주의를 돌리는 것은 매년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집중 시간(block schedule)은 특정 작업을 위한 특정 시간의 할당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간대에는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 작업에 두 시간이 할당되었다면,

그 시간 동안 작업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메일 확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일에 대한 충동을 참습니다.

작업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특정 시간 또는 요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사이에 다른 일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내 문제가 아니라, 내일 작업하기로 한 거니까, 오늘 할 일은 이거야." (나도 지금 이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벽에는 처리해야 할 학교 논문이 걸려있

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이건 오늘 내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말하는 건 내게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짐까지 대신 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당신은 얼마든지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7).

IX 교회론 (2)

C. 은혜의 수단 (혹은 은혜의 방편, The means of grace, media gratia)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단이나, 방편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특정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도 없고, 성도의 삶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요리문답 88은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들을 전달하시는 일반적 외적 수단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그 모두가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

역사를 보면 은혜의 수단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와 교회 자체를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가톨릭교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성례의 행위와 의식 그 자체 안에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하면 의식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 의식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루터교회』는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말씀을 떠나서는 성례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비주의』는 은혜의 수단들이 자연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적인 효력과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일반적인 수단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말씀과 성례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한다.

『이성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초자연적인 활동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도덕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한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은혜의 수단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means)과 도구(instrument)가 된다고 주장한다. 은혜의 수단들을 미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도구들을 매우 귀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1.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씀이다. 이것은 성경과 또한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의미한다. 말씀과 성령은 깊은 관계가 있다. 율법주의(합리주의, 펠라기우스)는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의 필요를 말하지 아니하며, 반율법주의(antinomianism)는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고, 말씀의 필요성을 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혁주의(Reformed Faith)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함을 주장한다(the Spirit works "with the Word," cum verbo).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의 두 부분이 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며,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하여 복음을 믿도록 하고,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구약은 복음의 형태로 있다가, 신약시대에 복음과 구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는 모두 율법과 복음의 요소가 있다.

2. 성례

【소요리 문답 제92문】 성례는 무엇인가?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

례는 말씀없이 완전하지 못하다. 말씀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례는 다만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성례는 진실된 신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

1) 세례

【소요리 문답 94】 "세례란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세례의 방식, The Mode of Baptism】 세례를 베푸는 일반적인 방식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법(sprinkling), "물에 잠그는 침례(immersion), 그리고 머리에 물을 붓는(pouring) 방법들이 있다.

세례의 방식을 온 몸을 잠그는 침

한다. 만약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본문은 침례를 베푸는 자와 침례를 받는 자가 모두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침례를 베푸는 집례자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만이 물속에 들어간다.

세례의 방식이 물을 뿌리는 행위 혹은 물속에 잠그는 행위 문제로 너무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세례 자체가 실제에 대한 외적인 표시이며 인을 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곧 종생과 거듭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세례의 의미】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 세례는 언약에 가입되었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쳐야 하며, 유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유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유아들에게 경건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1)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 은혜 언약의 표는 할례이었다(창 17:9-10; 롬 4:10-11). 신약 시대의 세례는 구약시대 할례처럼 언약의 표시와 인(sign and seal)이었다(롬 6:3-4; 고전 10:2; 12:13).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상징이다.

세례와 할례가 외적인 모양을 다르지만, 그 의미는 모두 동일하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 모두 은혜 언약의 외적인 표현이다.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동일하며, 발전적인 연속체이다. 구약 교회는 신약교회의 예표가 되며, 신약 교회는 실체가 된다. 그러므로 신구약 교회는 본질상 동일한 실체와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도 신, 구약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초한다.

유아세례는 유아들까지 포함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초한다. 바빙크의 『개혁주의 교의학 4권』에 의하면, "장년이나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반드시 그들의 믿음과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 때문이다. 유아세례의 근거로서 이 보다 더욱 든든한 것이 없다."

(2) 땅위의 교회에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섞여 있다(마 13:24-30).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여부를 완벽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베풀 수 밖에 없다.

성령께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양 고백때문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은혜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다. 유아는 은혜의 수단인 세례의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세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성인이나 유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이다.

(3) 교회 역사에서 아거스틴은 유아세례는 사도적인 전통(apostolica tradition)이며, 자기 시대에 유아세례가 실시되고 있다고 했다. 키프리안이 참여한 공의회(253 A.D.)는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베풀고 했다. 그레고리는 "한나가 사무엘이 출생되기 전에 그를 하나님께 바쳤다. 아이는 어렸을 때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 했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4)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혜들이 사람들이 각각(각각)할 수 있는 표(sign)로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된다.

【소요리문답 제93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어떤 것들인가? 【답】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다. 사람들이 고안하여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신적 권위가 있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insensitivity)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seal),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성례는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외적의 가시적인 표와 인치는 것(visible signs and seals)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수단(방편)으로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말씀은 성례없이도 스스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완전하지만, 그러나 성

례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례 혹은 침례 어느 것이 맞는가?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례 혹은 침례 그 자체가 실제(중생함을 받음)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이며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다.

침례만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세례는 "정결하게 하라, 혹은 씻는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시는 표지만으로 실시되어진다(반드시 물속에 잠그는 의미가 없다). 구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물을 뿌리는 예식이다(시 51:7; 겔 36:25; 요 3:25-26; 행 2:38; 22:16; 히 10:22; 벰전 3:21).

그리고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말씀을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몸이 물속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낮은 곳,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다가 언덕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을 말한다. 행 8:38-39도 같은 의미이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라고

자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sign)이며, 인(seal)을 치는 것이다.

(2) 세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τοῦ σώματος τῆς σαρκός), 칼빈은 이것을 우리의 죄와 부패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했다.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부패성 전체를 벗기는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의 지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다(딤후 3:5; 벰전 1:2; 요일 1:7; 계 1:5).

(3)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의미: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의 함께(συν)의 의미는 "연합" 혹은 "접붙임"을 의미한다. 로마서 6:3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한다.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이 유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표(sign)와 인(seal)이 된다는 의식이다. 유아세례를 받는 유아에 대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아들을 가르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서부(CA)교회안내) listing various churches with contact info,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가족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슬소망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8)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9장 회심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자신의 책임(4)

교리 7 적용

3. 죄인의 멸망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증거들

우리는 영혼의 가장 큰 범죄와 살인자를 찾아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며 자신의 의지이다. 여러분은 증거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고백하며, 이로 인해 겸손해지는 것 외에 해야 할 다른 무엇이 남아있는가? 만일 아직까지 약간의 소망이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악됨을 깨닫자. 겸손하자. 여러분을 개혁되게 하자.

1)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의 증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책임져야 할 일차적 원인이 된다고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부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만드셨으며, 또한 만물을 보전하고 유지하고 계신다. "오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시 145:17). 그러나 인간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어두워져 있으며 인간의 의지는 왜곡되었고, 인간의 감정은 그를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파멸시킬 만큼 그렇게 어리석고 부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3-15). 거미가 독을 품고 있듯이 여러분 자신 안에 악을 쌓아 놓고 있으며, 이 쌓아 놓은 악으로부터 자신이 해를 입는다. 여러분의 본성은 멸망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어떤 유혹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

여러분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듣거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

문이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의 지성을 오류와 편견에 빠지도록 유혹하면 여러분은 굴복한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 안에 어떤 정욕과 악한 감정과 욕망이 생기기만 하면, 곧 그렇게 된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집어넣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는 매를 듣거나 선동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여러분은 사탄과 함께 일을 시작하며 또한 중간에 그를 만나서 그를 포용하며, 오히려 그가 여러분을 유혹하도록 그를 유혹한다. 미끼를 입질하다가 낚시바늘을 문 탐욕스러운 고기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다.

3)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싫어한다는 것이 증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돕고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격하게 느껴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소멸한다. 만일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려고 하면 비록 그렇게 노년이나 젊은이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교리문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들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스스로 속고 있으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마치 여러분이 선생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반박한다.

4) 자신의 멸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증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과 공의로우신과 거룩하심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도 여러분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으로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비롭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것을 자신의 죄를 강화시켜

주는 방편으로 남용하고 있다.

5) 자신의 멸망을 구세주에게 돌리는 것이 증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오히려 더 담대히 죄를 짓는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있다. 마치 죽음의 위협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은 담대해져서 죄짓는 모험을 하려고 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여러분의 종이 된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악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의사가 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의 도움을 거절하면서도 그의 처방을 핑계쳐 버리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며, 그들을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과 그들의 머리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마 1:21; 딤후 2:14; 벰전 1:15,16; 골 3:10,11; 빌 3:9,10).

6) 자신의 멸망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 것이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지와 뜻을 생각할 때면, 그것은 여러분의 죄로 가득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논쟁으로 가득차게 만든다. 마치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거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원인이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모든 것에 핑계댄다.

7)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죄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증거

여러분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좋은 대로만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자비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손상시킨다. 다

른 사람들의 명예와 존귀를 보면 여러분은 그들을 시기한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를 보면 탐을 낸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정욕이 발동한다.

8)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죄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증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은혜의 방편들을 여러분은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재능이 있으면, 점점 교만해지고 스스로 속고 만다. 여러분의 기도는 죄로 변하고 만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시 66:18)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 28:9).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어리석은 자의 제사를 드릴 준비가 더욱 되어 있다. 주의 잔을 버기 전에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주의 몸을 분변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고전 11:18,29).

9)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죄짓는 기회로 삼는 것이 증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그를 미워한다. 반대로 불경건하게 살면 그들을 따라 행동한다. 경건한 자들이 정확하게 행동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외식자들의 진실이 밝혀지면 여러분은 그들은 모두 똑같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정직한 것처럼 생각한다. 신앙인은 거의 어떤 불행에 빠져들지 않지만, 그들이 손가락을 베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히 자신의 목이라도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분명하게 다루면 여러분은 그들이 비난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이 부드럽게 말하거나 냉담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졸거나 여러분이 알아있는 의자보다 더 반응이 없다. 교회 안에 어떤 실수가 생기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불경건한 자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자이며,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you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8) 더 더욱 필요한 기도일진데...

지난 서너 달 전부터 기도와 성경읽기에 좀 더 열심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기모임때면, 예배 후 간단한 시상식을 갖고 이와 관련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을 펼쳐 보게 되었다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쪼개 성경소개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분도 있으니 큰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누군가가 문자로 매일 보내주는 성경구절을 읽어보고 잠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 달간 어느 만큼의 시간을 썼는가를 묻는 용지에 아예 쓰려고도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삶의 이 굴곡 저 굴곡을 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회의를 가지며 기도한다는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진게 아닌가 합니다.

어느 한 분은 배우자가 떠나고 도대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기 위해 성경을 보던 중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었다며 늘 같은 구절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었다는 '왕년에.. 신앙인'이라고 할까요. 다른 분은 직분자였던 배우자의 강요로 헤어져야 하면서 신앙에 대해 회의로 현재까지의 기도를 위해 눈 감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한부모 사역의 헛수가 더해감에 따라 느끼는 것은, 참석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곧 그들로 예배드리고 성경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확신이 오고,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거쳐 영이 거듭나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곧 최선입니다.

찬송가 364장, '저 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분을 보여 주셨네'라는 가사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기도에 마음을 쏟으신 것을 늘 머리에 그리면서 가슴에 새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공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이기기 위해서 일단 장소와 시간을 정해 놓고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속 말을 드러야 할 것이며,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달리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행여라도 문을 조금 두드려도 말아서는 안된다며 끊임없이 강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골 4:2) 기도가 쉽게 되는 것인 '힘쓰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자신의 의지와 싸우면서 하는 것이 기도이며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던 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부모사역 인도자들께서, 참가자들이 끈질긴 기도 생활을 통해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hyojungy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njok, Honggore, Baskerville, Bannockburn, Boston, Saemang, PCAC, Kilsan, Yongsang, Kilsan, Winstone, Tacoma, and others.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역시 목사님 뻘은 하나님

전 세계 나라 사람들과 미국인의 문화가 뒤섞여 팽딩팽이라고 불리우는 뉴욕은 누구나 한 번쯤은 방문해 구경하고 싶은 도시입니다. 세계의 수도답게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35미터 이상의 건물들만 4,686개에 있고, 그 중에

200미터 이상 되는 초고층 빌딩은 75개나 됩니다. 볼 거리가 많은 뉴욕을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뺨을 타고 LA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제가 교회 식구들에게 "모두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지요?"라고 확인하고 출

발하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표 발권을 마치고 각자에게 비행기표를 나눠주고, 비행기 탑승을 위해 검사대에 줄을 섰습니다. 각자의 비행기표와 신분증을 꺼내서 한 명씩 검사대를 통과하는데, 나는 양복 윗 옷과 바지 주머니에서

나의 신분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 보아도 어디에도 나의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나오기 전에 신분증을 넣어 둔 양복 바지를 새 양복으로 바꿔 입으면서 신분증을 꺼내 새 양복 바지로 옮기지 않고, 그냥 새 양복을 입고 공항으로 왔던 것입니다. 비행기 마지막 탑승 시간까지 50분이 남아있었습니다. 일단 일행들을 먼저 탑승게이트로 들어가게 한 후 앞집에 사시는 교회 집사님에게 부탁하여 제 신분증을 공항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집에서 공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니 30분으로 나옵니다. 잘 하면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많아서 탑승수속대를 통과하는데 적어도 1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교회 집사님이 공항에 오시는 동안 나는 두 가지를 부탁하기 위해서 비행기 발권 수속대로 향했습니다. 내가 탑승 수속대를 가능한 빨리 통

과하여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비행기를 놓치게 된다면 다음 뉴욕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알아보고 부탁하려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행기 손님 서비스센터 줄에 섰습니다. 비행기 마지막 탑승 시간까지 25분이 남은 상황에서 드디어 직원을 만났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내 신분증을 가지고 5분 이내에 공항에 도착하는데 일반 탑승 수속대 말고 빨리 수속대를 통과하여 비행기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집에서 공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니 30분으로 나옵니다. 잘 하면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많아서 탑승수속대를 통과하는데 적어도 1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교회 집사님이 공항에 오시는 동안 나는 두 가지를 부탁하기 위해서 비행기 발권 수속대로 향했습니다. 내가 탑승 수속대를 가능한 빨리 통

기 위해서 탑승 수속대로 걸어 갔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 식구들이 기대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가는 뉴욕 여행길이 자칫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행이 즐겁고 행복한 뉴욕 여행이 되도록 비행기를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뉴욕을 다녀온 후 이 이야기를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니,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목사님 뻘은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뒤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의 든든한 뻘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뻘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yosupbois@gmail.com

설립 20주년을 맞는 알칸사제자들교회

"10대 감사제목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선포"

알칸사제자들교회(담임 전남수목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으며 임직식과 한국의 손현보 목사를 초빙, 20주년 감사행회를 은혜가운데 드렸다. 본 교회는 '교회사랑, 예배회복, 일천강국(사60:22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약한자가 강국을 이룬다)'의 포어를 걸고 20년을 달려왔다. 전남수 목사는 아래와 같이 10개의 감사제목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동역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1. 신앙동지의 비전으로 탄생

교회가 시작될 때, 대부분 이민교회가 가지는 오랜 시간 분장과 갈등 속에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예수 더 잘 믿기 원하는 신앙의 동지들의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 그러나 이것이 지상교회의 연합함을 간과하는 교만함이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리 보면대 하나두고 신학교 거실에서 시작되어, 반 지하 빌딩에서 40개 의자를 두고 모였으나, 소망동산과 숲속의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육관(총 90AC)과 학사관을 허락하심을 감사.

4. <교회와 예배중심>의 목회철학

초기의 제자훈련의 비전위에 개혁부터 지금까지 전교인 제자훈련을 편성하여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는 주제와, 제자 됨의 마지막 목적인 '참된 예배자'의 비전을 예배회복운동(Nyskc Movement)의 원리 가운데 통합함으로써, 신앙생활의 본질 - 예배에 집중하고 충실한 교회로 비전 안에 행하게 하심을 감사

람이 없으니 개혁을 만류하던 목사님도 계셨는데, 최근까지도 200여명(유세포함)이 되는 세례자가 나와서 평균 한해 14-15명 정도의 새가족이 모였고, 한인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도시에서 복되게 사역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내에서도 상회 부담액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 매년 전도와 선교사역을 감당하여 지난 20년 간 24회의 행복의 초대와 멕시코 선교 2회/인디언 뉴멕시코 선교 13회/중국선교 4회 및 12곳의 선교지를 후원케하심을 감사.

6. 한글교육과 신앙유산

2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한국어로 예배드리게 하심과 월초의 월삭예배와 첫째주 패밀리 위임을 통해 부모의 신앙 유산을 충실히 전하며, 한국학교를 통해 우리말 교육의 풍성

2. 자원하는 헌신의 열매

개혁자금을 모금하거나 단 한곳의 개척/선교후원을 받지 않고, 오직 개척멤버들의 헌신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셔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3. 영적보금자리를 풍성케 하심

100불짜리 키보드와 20불짜

5. 선교와 전도진력

처음 개척당시의 전도할 사



임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

7. 부설기관과 사역확장

20년 전 처음 시작된 학사가 남녀 학사관의 자체건물과 신실한 청년들을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더불어 선교원/음악학교/한국학교 등의 부설기관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폭이 확장됨을 감사.

8. 평신도 지도자와 사역자

좋은 평신도 지도자 & 사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개혁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고, 열악한 지역 한

경에도 사역에 은혜 주심을 감사. 자랑스러운 장로님들을 세워 이민교회 역사에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

9. 20년간 한결같은 40일 특새

2003년부터 20년 동안 40일 기도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하며, 5대 사역목표를 통해 예배가 온전한 교회/영혼구원의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교회중심의 제자훈련하는 교회/2세교육에 집중하는 교회/복한선교의 운명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로 비전을 삼고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 더불어, 2021-2030년의 3가지 비전

을 품게 하심을 감사(교회사랑/예배회복/일천강국)

10. 망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장 감사드리신 것은,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인생의 연합과 유약함이 교회 가운데 있었으나, 말로 다할 수 없는 망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회자인 저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총 한가지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불황: 회개와 정화, 사랑과 나눔의 기회

(1면에서 계속)

불경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경제 쇠퇴기에는 흔히 여러 종류의 악영향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할 때,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한다. 기업가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소규모 사업체들 역시 감소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소비자들의 상품과 서비스(자동차와 같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주택 수요 부족은 집값 하락을 불러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불경기가 짧더라도 개인의 기회와 재정애 미치는 영향은 수십 년, 심지어 평생 지속될 수 있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장이 오래 지속될수록 좋지 않은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은 사람과 같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과열-과열된 경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완전 고용과 국가 자원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자산 거품-자산 거품은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초과하여 다투어 가격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보고 자산을 사들이고 그것들이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가게 되

중 닷컴 버블에 의해,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된 불황은 주택 버블이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 경제적 충격-경제적 충격은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예상치

1978-79년 이란 혁명 등의 사건들로 인해 유가가 치솟았던 석유 파동이 있다. 널리 사용되는 자원의 공급 지장은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을 약화하는 파급

중요한 이유

불경기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빈번하

산(즉, 우리가 소유한 부동산 등)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예상치 못한 침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 해의 불경기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볼 수 있다.

불경기는 또한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에게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짧은 경기 침체에도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 자체가 영적인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기부가 줄어들게 하고 긴축하게 하여 교회가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이것은 지역 경제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침체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와 정화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교회가 상처받은 성도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불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경제학자는 불경기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지난 70년 동안의 경험적 증거는 불황이 단순히 긴 확장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더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차 세계 대전 준비도 의장은 "경제 확장이 시간이 오래돼서 사라진다는 것은 신화라고 생각

면 그것은 사람들의 부를 끌어낼 수 있다. 금세기 두 번의 불황은 대부분 자산 거품 때문이었다. 2000년대 초반의 불황은 중

못한 외부 사건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1956-57년 수에즈 위기, 1973-74년 석유수출기구(OPEC)의 석유 금수 조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 정책-시장이나 통화 공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종종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 발생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거나 우리의 부를 하나의 자



"불황은 우리를 회개와 정화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교회가 상처받은 성도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한인봉사센터, 거스너 지원

뉴욕한인봉사센터는 현재의 힘든 경제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청구서 지불(연체된 임대료, 의료 비용, 공공금 미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의: 베이안 선생 718-939-6137

'제2회 환상의 조' 목사, 장로 탁구대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 주최로 제2회 환상의 조 탁구대회가 6월 29일(목) 오전 10시에 뉴욕탁구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목장리그(목사와 장로), 장부리그(장로 부부)의 2개 복식 리그로 치뤄진다. 참가비: 팀 당 \$50, 시상: 1등, 2등, 3등 우승트로피 및 부상

▲문의: 황규복 장로 917-204-9879

뉴욕장로교회, 유스오케스트라 씬머 뮤직캠프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7월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전공자와 함께하는 유스오케스트라 씬머 뮤직캠프/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한다. 등록마감은 6월30일(금)이며 참가 대상은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및 외부 교인도 환영한다.

▲문의: 김귀선 집사 646-201-3419



로them하우스 오픈 커팅식을 하고 있다

뉴욕효신장로교회 로them하우스 오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회복, 위로로 소망하며”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는 6월11일(주일) 성도의 교제와 다음세대를 위한 다목적 공간 '로them하우스' 오픈 행사를 가졌다.

로them하우스는 1996년 9월 예배당 폭발 사고 후, 수요예배와 새벽기도를 드리는 곳으로, 새 예배당 완공 후에는 교회사무실과 성가대연습실, 게스트룸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팬더믹 즈음부터는 사용되지 않던 공간을 성도들의 교제와 소그룹 모임, 다음세대를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해짐에 따라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리모델링은 전문업체에 맡긴 것이 아닌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만든 공간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갈렘산 전투 후,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먹여 기력을 찾게 하고 다시 일어나 걷게 했듯(왕상 19:1-8), 힘든 이 민생황에 지친 성도들이 이곳에서 영의 양식(말씀)을 먹고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 얻기를 소망하며, 로them하우스(Rothen House)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김광선牧사는 “로them하우스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 매입하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건물 곳곳에 배어있기에 가격이나 건축학적 평가를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 곳이다”며 “이곳에서 다음세대가 꿈을 꾸고, 젊음세대가 힘을 충전하며, 어른세대가 위로를 얻기를 기도한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뉴욕효신장로교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17회 총동문회의 밤

총 29명의 졸업생 및 첫 신학석사(Th.M) 졸업생 배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총동문회(회장 정인수 목사) 제17회 총동문회의 밤이 6월 19일(월) 오후 6시에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친교실에서 열렸다. 총동문회장 정인수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가 올해 신학석사(Th.M) 과정 첫 졸업자를 배출하는 등 새로운 도약과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총동문회 역시 신학교 발전과 발맞추어 도약과 개혁의 물결에 합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기도 김경수 목사(직전 회장), 성경 봉독 이경남 전도사(부회장), 찬양 신학교 찬양대, 설교 김성국 목사(학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달려 가노라(빌립보서 3:14)”를 주제로 “우리는 달리는 자들이며,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달리듯이 우리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대표로서 달려 나간다. 단순한 개혁주의 신학교로서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정하신 뜻을 향하여 주님 오실 그날 까지 절대 진리를 쫓아 나가자”라고 설교했다. 이어 헌금축송 신동기 목사(뉴욕심포니교회)의 연주, 봉헌기도 서옥석 목사(우리반석교회), 격려

사 이용호 목사(평안장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격려사를 전한 1회 졸업생 이용호 목사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자부심과 감사를 가지고 하자, 둘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자, 셋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자”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정인수 회장이 김경수 직전 회장에 감사하며 긍정적이며 학감 정기태 목사는 학사보고를 통해 “1987년 설립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29명의 졸업생 들을 배출한 34회 졸업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지금까지 총 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동문선교사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뉴비전청소년커뮤니티센터 채양규 목사, ACE선교회 장규준 목사,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광고 전행복 목사(협동총무), 축도 이원호 목사(중부뉴저지장로교회)로 예배를 마쳤으며 김지희 목사(광성교회)의 기도 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상 기자)



총동문회의 밤 예배 후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CTS뉴욕방송, 방송국을 확대이전하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

디지털 시대의 복음전파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

CTS뉴욕방송이 베이사이드에서 롱아일랜드로 방송국을 확대 이전하고 6월 14일(수) 오전 10시30분에 포트워싱턴에 위치한 새로운 방송국에서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전 감사예배에 참가한 CTS기독교TV 감덕규 전무는 아쉬웠던 제작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인사했다. 특별히 Z세대들이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 이름에 ‘교회’를 붙이지 않고 ‘커뮤니티’를 붙이는 시대상을 소개하며 “CTS가 이 시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경철 회장은 영상 인사를 통해 “공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단장된 공간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CTS뉴욕방송 손민석 국장은 확대된 방송국 공간의 사용계획을 소개했다. 세트를 만들어 진행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방송국의 한 면에 LED를 설치하여 고화질과 고품질로 방송을 만들어, 세상방송에 비해 서도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감사인사를 통해 CTS뉴욕방송 후원이사장 김중훈 목사는 방송국 공간이 5배 이상 넓어졌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앞으로 50배 이상 커질 것이라며 축복했다. 김 목사는 스태프의 수고에 격려하며, 세계중심에서 복음전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했다.

축사를 통해 필라델피아로교회 백운영 목사는 “복음은 선명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의 책임은 시대를 읽고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복음전파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고 했다. 튀르기에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격려사를 한 유동운 선교사는 CTS 뉴욕방송의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소개하고, 방송국 이전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한편 앞서 드려진 예배는 사회 문정웅 목사(뉴욕방송 후원이사회 총무), 기도 박윤선 목사(뉴욕여린양교회), 설교 김경호 목사(후리심체일교회), 축도 김호성 목사(국제도시선교회 대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호 목사는 역대상 4:9-10 말씀을 본문으로 “지경 확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베스가 지경을 언급한 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말한 것”이라며 “CTS뉴욕방송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인해 건물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복의 지경의 확장”을 축복했다.

CTS뉴욕방송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케이블 회사들이 케이블비전과 유튜브를 통해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위성체널인 디렉티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영상을 볼 수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오전강의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한인교회, 김지찬 교수 초청 제4회 뉴욕신학세미나 개최

‘신학과 설교, 구약과 해석학’ 을 주제로 6회의 강의 진행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제4회 뉴욕신학세미나를 6월 19일(월)-20일(화)까지 퀸즈한인교회 바울관 2층에서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를 초청, ‘신학과 설교, 구약과 해석학’을 주제로 개최했다.

김바나바 목사는 “해마다 ‘뉴욕신학세미나’로 한국에서 전문적인 신학자들을 뉴욕에 초청하여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초청하여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바나바 목사는 “해마다 ‘뉴욕신학세미나’로 한국에서 전문적인 신학자들을 뉴욕에 초청하여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바나바 목사는 “해마다 ‘뉴욕신학세미나’로 한국에서 전문적인 신학자들을 뉴욕에 초청하여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찬 교수는 총신대학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에서 구약학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으며 총신대 모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30여년을 지내고, 내년 6월에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저서로는 박사학위 논문인 ‘The Structure of the Samson Cycle’, ‘언어의 직공이 되라’, ‘구약 개론’,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등이

있으며 ‘윌리엄 휘스턴과 ‘요세바 목사)는 제4회 뉴욕신학세미나를 6월 19일(월)-20일(화)까지 퀸즈한인교회 바울관 2층에서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를 초청, ‘신학과 설교, 구약과 해석학’을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6회의 강의로 ‘성경 본문의 디테일에 승부를 걸라!(십일조와 설교)’, ‘세상과 본문과 자신에 정직하라!(시91편과 설교)’, ‘권고 후의 의의라!(욥기와 설교)’, ‘건고한 성경 신학적 틀을 가지라!(언약 신학과 설교)’, ‘시간을 조각하는 극작가가 되라!(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설교)’, ‘성경적 영성을 추구하라!(루터의 영성/신학 방법론과 설교)’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전하는 한편 자신의 경험과 신학자로서 개인의 의견을 나누어 참석자들이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강의 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많은 뉴욕 교계의 리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큰 의미를 더했다.

(김재상 기자)



목사안수식 후 신임 목사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제44회 미주성결교회 목사안수식 열려

심영보, 이성은, 박창균 목사안수

제44회 미주성결교회 총회 는 6월 16일(금) 오전 11시 롱아일랜드성결교회에서 목사안수식을 열고 3인(심영보, 이성은, 박창균)을 목사로 안수했다. 3명의 신임 미주성결교회 심영보 목사는 뉴욕은누리성결교회 심영보 목사, 주동행교회 이성은 목사, 워싱턴감사교회 박창균 목사 등이다.

안수식은 사회 부총회장 조승수 목사, 기도 동부지방회장

황영송 목사, 설교 총회장 허정기 목사, 예식사와 서약 총회장, 안수자 소개 고시위원장 황하균 목사, 안수례, 공포, 파송 기도 전 총회장 이의철 목사, 권면 전 총회장 이대우 목사, 축사 전 총회장 김석형 목사, 광고 총무 김시은 목사, 축도 전 총회장 김석형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김재상 기자)



CTS 방송국 이전 감사예배 후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피종진목사 6월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제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 뉴유주립대학교 영어연구원 총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 (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 010-5255-7777
- GodBless3377@gmail.com

1(목)-2(금)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5(월) 저녁 연안시 연합 특별성회 주최 : Good TV 부흥사 협의회 (대표회장 김용희 목사) 02-7291-0291
 장소 : 연안시 기쁨의교회 (김순희 목사)
 6(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8(목) 오전 연세대학교 연부흥 Event Function
 10(토) 오전 Enterprise Blessing
 10(토) 오후 국제신학교 (이서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제231차 해외성회 (231th Overseas Assembly)

12(월)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총화신학 (학장 정스데반 선교사)
 13(화) 일본 (JAPAN) 나리타 사령교회 (담임 정스데반 선교사, 김태실 선교사)
 14(수) 일본 (JAPAN) 예수 사랑교회 성회, 한울장로성가단 특별출연
 15(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전도사역 및 일본인과 중국인을 위한 한국문화홍성회 한울장로성가단 특별출연
 일본 Narita 출발

16(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광 목사) 010-8331-3431
 19(토)-20(토)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22(목)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주최 : 사단법인 누가선교회 (총재 정근모 전 장관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22(목) 오후 제천 열방교회 (최미나 목사) 010-2985-9077
 주최 : 한국기독교 여성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23(금) 미국 (USA) 조지아 아가페선교회 (강진구 목사) (678) 462-7526
 24(토) 미국 (USA) 미주 동남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연합성회 (준비위원장 윤도기 목사)
 25(주일) 미국 (USA) 아틀란타 화평성교회 (김희환 목사) (770) 963-3124
 26(월) 미국 (USA) 아틀란타 목회자 세미나 (준비위원장 김영연 목사)
 27(화)-29(목) 미국 (USA) Arkansas 제자교회 (전남수 목사) 501-920-9049
 주최 : NYSKC World Mission (HQ 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서울),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 (뉴욕)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IL), 준비위원장 전남수 목사(Arkansas)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sca.or.kr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비전오브갓 인 아프리카 설립감사예배

“복음과 빵 뿐 아니라 교육선교도 감당해야”

비전오브갓 인 아프리카(Vision of God in Africa, 최재노 선교사) 설립감사예배가 17일(토) 오후 3시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에서 열렸다. 최재노 선교사는 “말라위는 우리나라 1.3배 면적이며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1900만명, 그리고 GDP는 세계 151위 최극빈국 중 하나”라며 “아프리카는 기독교인이 80%인 반면 혼합종교화가 되어 예배가 주술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1%정도라 복음전파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선교사는 “말라위 선교는 의료선교를 겸해서 하려고 한다. 말라위에는 병원이 있지만 의약품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치료시기를 놓쳐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많다”며 “말라위 정부에서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권면을 받았다.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을 모델로 사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라위는 교육선교도 필요하다. 특별히 시골에는 학교가 거의 없으며 교사들도 부족하여 교육이 잘 안되고 있다”며 “현재 유초등 과정으로 학교를 시작했으며 고학년 과정까지 수업을 마련했다. 특별히 철저한 기독교교육을 통해 말라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많이 배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세헌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영석 목사(LA광명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한기형 목사(CBS기독교방송 대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21:15-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형 목사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최전방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말라위 선교지 비전오브갓 인 아프리카에 사명을 맡기셨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누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시켜 말라위 사람들이 지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충성스럽게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화량 목사(남가주교협 34대 회장) 축도에 이어 김영구 목사 사회로 열린 1부 설립기념행사는 최재노 선교사가 선교보고 했다. 이병만 장로(이사장, 미주한인재단LA 회장), 제임스 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고창현 목사, 이희문 목사, 최석호 전가주하원의원이 축사했으며 백지영 목사가 권면했다. 이날 행사는 정해진 목사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캠코랄 단원들이 합창하고 있다

캠코랄 15회 정기연주회

아프리카미래재단 후원 음악회로 열려

캠코랄(단장 김용태, 지휘 이수정 집사) 15회 정기연주회가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에서 17일(토) 오후 7시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아프리카미래재단을 후원하는 음악회로 열렸다. 이수정 집사는 “2006년 첫 연주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되었다”며 “이번 연주회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삼진 목사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도나노

비스콤팩’, ‘솔리데오’, ‘주에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시네마천국’, ‘바람의 노래’ 등 다채로운 장르로 공연을 펼쳤다. 또한 재즈보컬리스트 이진미 씨가 찬조 출연해 캠프코랄과 함께 무대를 꾸며주었다. 한편 이날 아프리카미래재단 미주법인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주회는 김성남 목사(부에나파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총영사 관저에서 '2023 한인 입양인의 밤' 행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3 한인 입양인의 밤’ 행사

“한인 입양인 문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미주한국입양홍보회(MPAK, 회장 스티브 모리슨)가 공동으로 지난 9일(금) 오후 6시 총영사관 관저에서 ‘2023 한인 입양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2023 한인 입양인의 밤’ 행사에는 한인 입양인과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인법 캠페인 단체(Adeoptee Rights Campaign, 이하, ARC, 대표 조이 알레시)가 미국에 입양되어 양부모들의 귀화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을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했

다. 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권법 통과 전이라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의 실제 구제된 경험담이나 사례를 공유해 봄으로써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그동안 소외됐던 한인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며, 한인 입양인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센터메디컬그룹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장학금 수여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센터메디컬그룹 장학금 전달식

2023년 센터 IPA 파운데이션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지난 15일 세라톤 세리토스 호텔에서 제이 조이 대표와 박수영, 안우성, 조이스 리 주치의, 제니스 안, 줄리아 박 등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9명의 장학생들에게 1인당 1,000 달러를 수여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예년과 달리 올해 장학생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자세한 것은 대학 신입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 학부형들도 자리를 함께

해 전달식 후 뷔페 점심을 들며 오붓한 시간을 나눴다. 장학생들은 컴퓨터 마우스 패드, 필기 용품, 태울 등이 담긴 구디백도 받았다.

2018년 설립된 센터 IPA 파운데이션은 한인 메디컬그룹 유일의 장학 재단이다. 올해로 6회째 장학금 전달의 이정표를 세운 센터메디컬그룹은 2027년까지 10년 누계 100만 달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것은 (714)980-3532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베델교회, 찬양 사역자 김도현 초청 콘서트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성령이 오셨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 예수’ 등의 명곡을 작곡한 김도현 형제의 콘서트가 30일(금) 저녁 7시 30분에 갖는다.

▲ 문의: (949)854-4010

코윈퍼시픽, 제1회 한인 여성 장학생 모집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이하 코윈퍼시픽/ LA 회장 정정숙, 이사장 손혜숙)가 미래세대들의 교육을 위해 장학생을 모집한다. 수혜대상은 현재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파트타임(6학점 이상) 또는 풀타임 학위 취득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2023년 가을에 등록 예정인 한인 대학(원) 여학생이며 선발인원은 8-10명, 장학금액은 \$1000(1인당)이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 인적 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국내외 여성 및 세계 각 지역 한민족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2001년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여성단체이다. 모집 마감은 7월 5일, 코윈퍼시픽 LA Websit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윈퍼시픽 LA 웹사이트 kowinpacifi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Kowinpacificla@gmail.com

제73주년 6.25 기념식

제73주년 6.25 기념식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풀러튼에 소재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서 열린다. LA 총영사관,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와 미남서부지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와 공동주최하는 올해 기념식에는 UN참전국 외교단, 주류 정치인, 참전용사, 향군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육군 40사단 군악대가 행사를 지원하고,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메달을 전수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 문의: (213)385-9300

성산장로교회 중독과 정신질환의 예방, 회복 및 치유 세미나

성산장로교회(담임 권오근 목사 3709 Rolle St., Los Angeles, CA)가 술, 마약, 미디어, 성, 도박 등의 중독과 정신질환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고통받는 본인이나 가족들을 돕기 위해 “중독과 정신질환의 예방, 회복 및 치유 세미나”를 7월 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 제공) 개최한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Zoom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 문의: (626)202-5532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지휘자 청빙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는 3부 예배 임마누엘 성가대의 지휘자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세례교인으로 음악 전공(지휘 전공자 우대)로서 성가대 지휘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이며 7월1일까지 제출(yupak@dallascenral.church)하면 된다.

▲ 문의: (972)916-1999

최영희 전도사 소천

물덴동산장예인선교회 전 회장이자 현고문인 나성영락교회 소망부를 섬겼던 최영희 전도사가 6월12일 소천했다. 장례식은 오는 30일(금) 오전 10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갖는다.

▲ 문의: (323)227-1400

제3차 GIFT “Shalem 샬렘” 전인적리더십세미나

주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2차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GIFT 상담치유연구원(원장 리디아 전 박사)이 주최하는 제 3차 GIFT “Shalem 샬렘” 전인적리더십세미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오는 8월20일과 21일에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자기 내면의 탐색과 치유, 변화로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는 성숙을 이룬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대상은 현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및 목회자 사모이며 부부 및 개인 등록도 받는다. 강사는 전달훈 (Joseph Chun) 의학박사 / 리디아전 (Lydia Chun) 임상심리학박사이다. 리디아 전 공인 임상심리학 박사는 USC에서 심리학 학사, 바이올라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아주사퍼시픽대학교와 게이트웨이신학교에서 교수로, 미주복음방송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에 있다. 전달훈 박사는 MIT에서 학사, UCLA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내과, 소아과 알리지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샬렘 세미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소제목으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사모님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내면 탐색과 치유와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는 성숙을 이룬다는 목적을 가지고 GIFT for Community (501 C, 비영리단체) 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세미나 일정은 8월20일(주일) 오후 5시부터 9시, 21일(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이며 등록마감은 8월5일까지(세미나 참석인원은 30명이며 등록마감일 전에 인원이 차면 마감된다)

▲ 등록 및 세미나 장소문의 : giftshalem@gmail.com, 714-5224438 (정리: 이성자 기자)



최재노 선교사가 선교보고하고 있다



SF갯스이미지 단원들

SF 갯스이미지 창단 20주년 정기공연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

북가주 크리스천 청소년 문화선교단체 SF갯스이미지(단장 엄영미)가 지난 5월 27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창단 20주년 정기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엄영미 단장은 “지난 20년간 SF갯스이미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다”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하는 교사를 비롯한 모든 스텝과 학부모 크루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캠프 헤리티지 극장에서 열린 이날 공연은 고등학교 생으로 이뤄진 팀 2의 '해피 댄스'로 무대의 막이 열리고 중학생으로 이뤄진 팀 1의 'high Praise', 주니어 팀(만 5세~초교 4학년)의 앙증맞고 흥겨운 'Blessings on Blessings' 공연이 이어졌으며, 팀1과 팀2가 함께 무대에 올라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를 진심을 다해 함창해 감동을 선사했다. 행복한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된 팀 1의 '해피 송', 절제 있는 동작으로 한껏 멋을 살린 팀 2의 'Love Theory' 댄스 공연 역시 관중들의 박수갈

채를 받았다.

특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댄스팀프로젝트(DTP)의 'New Jerusalem' 창작 공연은 힘 있고 절도 있는 동작에 이어 다양한 감정을 표정으로 전달하면서 인간이 만든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이번 공연 주제를 잘 나타냈다.

마지막 순서에는 팀 2가 '킹덤에 맞춰 댄스 및 찬양을 했으며, 관객들이 다 함께 일어서 손뼉 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SF갯스이미지는 현재 만 5세에서 고등학교 12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오디션은 6월3일(토) 오후 2시부터 캠프 세계선교 침례교회(62 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에서 있다. 오디션 신청예약 링크 tinyurl.com/sfgodsimageum. 문의는 sfgodsimageum@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SNS에 넘치는 죽음... 청소년 분별 능력 길러줘야

극단 선택·자해... 검색어만 치면 무분별한 콘텐츠 쏟아져 악영향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가 동반자살과 자해, 자살 생중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회가 생명존중 문화를 전파하는 사역으로 자살예방 전문기관과 지역사회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오전 강원 강릉시 운산동 한 공터에 세워진 SUV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SNS 생방송을 켜놓은 채 투신해 충격을 줬다. SNS에는 '자살' '자해' 등의 단어만 검색해도 관련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이에 교회와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자살 예방을 위해 미디어를 분별해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

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이달 초 '자살유발정보 삭제 캠페인'을 벌였다.

바람길교회(김동영 목사)는 비영리 민간단체 '미담'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존중·자살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담은 교육청과 연계해 자살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에게 전문기관·전문가를 연계해 예방 활동을 한다. 김동영 목사는 "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방해 요소로 인해 요즘 시대 청소년이 감정 표현이나 감정 수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천적 이유는 감정의 부재이다. (자살예방·미디어 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게임 등에 관한 미디어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김남희 전문강사는 "청소년은 미디어 중독 취약계층이다.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타인과의 비교, 우울감 등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어신학, 하나님 정의와 사랑 왜곡하는 신성모독이자 거짓신학"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 합동신대원서 아카데미 열고 귀어신학 문제점 지적

귀어신학을 향해 '신성을 모독한 거짓 신학'이란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동성에 옹호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왜곡한다는 지적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합신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환 목사)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김학유 총장)에서 '제2회 합신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를 진행했다. 귀어신학은 교계 내 동성애를 옹호·정당화하는 이들이 정립한

신학 체계다. 이날 아카데미는 교계를 넘어 교육 현장과 문화, 법률 속에 스며든 귀어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동근 한길교회 목사는 "귀어신학은 정통 기독교 교의와 전통 윤리를 해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동성애자들의 섹슈얼리티(성정성)와 성정체성에 개방된 교회와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해석한다"며 "귀어신학은 문란하고 신성모

독적인 거짓 신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귀어신학을 내세우는 이들은 성경과 신앙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 원리를 벗어나, 동성애적 성적 경험과 상황을 신학 원리로 삼고, 성경을 그들의 성 정체성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는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실재성 그리고 그분의 신성과 유일성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국제기구 유엔이 보편적 질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상대성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게 되면서부터 반 성경적인 가치관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90년대 이후 이 같은 반 성경적인 이념이 유엔 기구 내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국가 주권과 전통 규범, 성경의 진리를 해체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어졌다"고 했다.

육진경 전국교회회복교사연합 대표는 이미 교육 현장에 들어와 다음세대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귀어신학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며 동성에 커플을 포함해 교육하는 등 전통적인 기준과 경계를 허물며 버림으로써 다음세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육도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날 아카데미에 앞선 1부 예배에서는 예장합신 부총회장 변세권 목사가 설교했고, 김학유 총장이 축사했다.



우크라이나 난민·고려인과 함께 축제

글로벌생명나눔 등 17일 경기 안산 교통공원에서

구호단체 (사)글로벌생명나눔(이사장 신연향)은 17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교통공원에서 'GLS 희망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우크라이나 난민과 고려인 등 15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주최 측은 이들에게 의류 3벌과 화장품, 건식, 음료수 등 30만원 상당의 선물 바구니를 제공했다. 행사는 난타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고영인 국회의원이 참석해 위로했고,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행사를 도왔다. (사)지미션에서 여성리뷰, 동국제약에서 화장품 건식

의료기기를, 광동제약(주)와 ㈜에이에스비에서 음료수를 지원했다. 안산시, (사)평화여성회, 필라멘트복지법인에서 행사용품 지원했고 접수 및 배분작업을 진행했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저개발국가의 긴급재난 구호, 의약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생명나눔 김정남 대표는 "6월 말 카호우카 댐 붕괴 지역에 우크라이나 6차 선적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등 외국인들을 지원해 기쁘고 9월 중에 한 차례 더 지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후원에 감사 드린다" 라고 전했다.



일터 등 일상이 선교지... "은사 활용 이웃 섬기자"

제1회 프레시 콘퍼런스 개막

10여년 전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한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는 크리스천이 일상에서 복음자이자 교회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상에서 은사를 사용해 이웃을 섬기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등 모든 환경이 선교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는 것이다. 19일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에서 개막한 제1회 프레시 콘퍼런스(FRESH Conference)에서는 국내외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강사로 나섰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

학원대(선교와문화) 교수는 "미셔널 처치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 시선의) 고도를 낮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자"고 권면했다. 김 교수는 영국의 미셔널 처치 운동인 '프레시 익스프레션(FRESH Expression)'을 사례로 들었다. 성공회에서 시작돼 현재 초교파적으로 진행되는 이 운동은 개인의 은사와 강점을 기초로 이웃과 연결된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다. 5~6명부터 최대 20명까지 소그룹을 지향하는 게 특징이다.



주름에 새겨진 섬 주민의 삶... 교회 '인생박물관'에 걸렸다

예장통합, 모범 농어촌교회 10곳 선정

전남 여수 황간도는 주민 60여명이 사는 작은 섬이다. 주민은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평범한 어르신이지만 그들의 삶은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황간도교회(이기정 목사)가 만든 '인생박물관'에 주민들의 얼굴이 걸린 것이다. 이기정 목사는 "섬마을에 사는 촌부의 인생도 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다. 자녀와 마을 주민들이 이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생박물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8년 전 황간도교회에 부임한 이 목사는 성도뿐 아니라 마을 주민을 섬기는 데에 목회 초점을 맞췄다. 그가 주민 한명 한명을 만나며 사진으로 포착한 얼굴은 한 화가의 재능기부로 초상화로 탄생했다. 그는 현재 주민들의 사진과 인터뷰를 영상화하는 중이다. 이 작업을 마친 뒤 주민

들 사진 옆에 큐알(QR)코드를 부착하면 관람객 누구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그는 "처음엔 주민들이 어색해하기도



한국세계선교협의회·한인세계선교사회·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현장 중심 네트워크 선교 집중" 공동 결의

국내외 선교 연합체들이 선교사가 견인하는 선교가 아닌 '현지·현지인 중심의 선교'에 중점을 두기로 다짐했다. 또 재정적 기반에 둔 선교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는 20일 서울 동작구 KWMA 세미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선교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들 단체는 "(한국 선교단체가) 선

교지 문화를 이해하는 일에 소홀했다. 오히려 후원교회의 선교 철학을 더 중요시했다"며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선교'를 펼쳐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했다.이 같은 결의는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제8차 NCOWE(엔코워·세계선교전략회의)에서 나온 선언문을 발전 시키겠다는 다짐이다. 세 단체는 한국교회와 선교사에게 "물질과 힘에 의한 선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회 개척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현지인 리더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쓰자"고 요청했다. 강대홍(가운데) KWMA 사무총장은 "100년 전 조선에 선교사가 왔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교회를 볼 수 있다. 선교사가 하고 싶은 사역보다는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교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목협 '제24차 전국대회', 신뢰도 하락, AI 등장...

위기의 목회, "변화는 수용하되 공동선에 충실해야"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목회자의 설 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회가 '변화'를 수용하고 '공동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지형은 목사)가 19일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지형은 목사)에서 개최한 제24차 전국대회에서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 행사에는 9개 교단 6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해 새로운 복음 전파 활로를 찾고자 머리를 맞댔다. 특히 발제자들은 AI로 인해 전문가 중심시대가 해체되고 기독교의 신뢰도 하락으로 성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회의 변화를 강조했다. 임성빈 전 장로회신학대 총장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순례자, 그 아름다운 걸음



이전에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차분하게 보이는 눈빛과 정갈한 말씨가 특별한 분이 있어 물었더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 필리핀에서 방문한 여행객이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성경의 야고보의 유해가 9세기에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많은 순례객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800킬로미터나 되는 순례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한 아름다운 영혼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

를 순례길을 걷는데 사용한다는 말에 순례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분이 있어 물었더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 필리핀에서 방문한 여행객이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성경의 야고보의 유해가 9세기에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많은 순례객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800킬로미터나 되는 순례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한 아름다운 영혼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

였습니다. 한국의 한 중형교회에서 담임목사 초청을 받았는데 사모님과 기도한 후에 선교사의 부름에 응답하여 온 분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만류하는데 대부분 유학생 밖에 없는 미지의 땅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마음으로 부부는 기꺼이 순례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렌트비도 내기 어려운 교회를 이끌고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다함이 없었고 그들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소박한 순

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았고 지켜보시는 주님의 환한 미소를 보는 듯 했습니다. 나그네란 말은 슬프게 들리지만 순례자란 말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언젠가 주님 앞에서 살아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아있는 참 아름다운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지상의 삶을 마치면서 한 집사님이 남긴 인사입니다. "목사님,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 가장 먼

저 마중 나가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향해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지상에서는 목사님과 집사로 만났지만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가냘픈 호흡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목사에게 한 여집사님은 미소지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신자의 죽음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이보다 순례자의 삶을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루 밤 잠을 자고 상쾌한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 그것이 지상의 삶을 마감하는 순례자의 모습

입니다. 하늘을 품는 순례자, 하늘 영광의 광채를 본 순례자는 땅 위의 화려한 것에 몰들지 않습니다. 매순간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순례자의 걸음은 가벼움과 기대감 그리고 고마움으로 가득합니다. 땅에서 취할 것이 없으니 가볍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에 기대가 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 눈을 열어 하늘의 찬란한 빛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고결한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preachchrist@kcpc.org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력가)

27강(신명기 10-26장) 모세의 2차 설교를 중심으로 (2)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신 12:8). 애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이 '왕'이고 '주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모두 그들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소견이 법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쪽 귀만을 뚫고 한 주인만 섬기며 한 주인 말만 듣는 것입니다(출 21:5,6).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려는 전쟁이 바로 '영적 싸움'이며 '신앙 생활'이며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예물을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고 고기를 먹기 원하면 먹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피는 먹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되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신 12:10-25).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신 12:26-28).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스스로 삼가 하나님이 말하신 자들, 심지어 그들의 신들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자들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신 12:29-32).

로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합니다(신 13:1-3).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그들을 '시험하심'이기 때문입니다(신 13:3).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신 13:4).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들은 가족, 아내, 친구 심지어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궁휼히 여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고 멸하여 악을 제해야 합니다. 그들의 물건도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신 13:5-17).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합니다. 주변 나라 백성들의 생활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들은 가증한 것이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짐승만 먹어야 합니다(신 14:1-21).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십일조를 먹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신 14:22,23,28).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너무 멀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다(신 14:24-26).

의 성전을 수종드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법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신 14:27-29).

하십니다(신 15:4-11). 종으로 팔린 동족민들은 7년째 해에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자유롭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로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들의 소출 가운데서 넉넉하게 주어야 합니다(신 15:12-15, 24:18). 그런데 만일 그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한쪽 귀를 뚫고 영구히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종이였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종'입니다(신 15:16-18).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종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절대로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아야만 합니다(신 15:19-23).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서 아무 곳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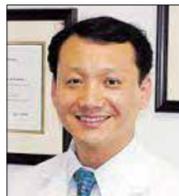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으로부터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 때에 이웃에게 꾸어준 것을 매 칠 년 끝에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신 15:1-3). 당장은 앞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형제를 돌보고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악한 눈으로 가난한 형제를 바라보지 않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hfamilia@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장폐색

가끔 소화가 안 되거나 바이러스 장염에 걸리고 나서 음식물을 먹은 후 복통과 함께 구토를 할 때 '장이 막히지 않았나?' 라는 걱정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의 장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데 정상적으로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장염에 의해서는 장이 막히지 않

는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50대 중

반의 박 모 씨는 3일 전부터 식사 후에 구역질과 함께 구토가 나서 병원을 찾아왔다. 음식을 먹고 나서 2-3시간 후에 속이

메스꺼고 음식물을 토해냈다. 또 상복부 통증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병원에 왔을 때 박 씨는 닥새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다. 박씨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장수술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가끔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박 씨의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맥박은 분당 110회로 빨랐다. 복부 검진 상 복부가 조금 팽창되어 있고 장음은 현저하게 감소돼 있었으며 만질 때 통증이 심했다. 복부 엑스선 촬영 상 장폐색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단층촬영을 통해서 확인되

해부학적으로 대장은 지름이 넓어서 꼬이거나 혈액 순환이 차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장폐색이 드물지만 소장은 지름이 좁아서 막히기가 쉽다. 과거에는 탈장이 장폐색의 흔한 원인이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장수술을 하는 환자가 증가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생기는 장 유착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장폐색의 3/4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복수술 후에 약 5퍼센트에서 장 유착이 나타나고 장폐색 증상을 보인다. 장폐색이 생기면 막힌 부위의 위쪽인 소장과 위가 늘어나



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발생

었다. 박 씨는 장이 막히는 질환인 장폐색이라고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게 되고 소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장에 괴사(장이 썩는 것)가 일어나게 된다. 장폐색은

소장 일부만 막히는 부분 장폐색이 있고, 장 전체가 막히는 완전 장폐색이 있다.

수술 후에 생기는 장폐색은 대부분 부분 장폐색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수술보다 예후가 더 좋다. 하지만 완전 장폐색인 경우 수술 이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고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장에 괴사가 일어나서 사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분 폐색인지 완전 폐색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문의:213-383-9388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롬8:38-39) 찬 408장

사도는 성자의 사랑이 성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 큰 사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어떤 위협에서의 승리를 찬양합니까? 첫째, 그는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이 통제함을 찬양합니다. 사망과 생명, 극과 극에 달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드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으나 사나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둘째, 영계의 권세에

서도, 그 사랑이 작용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의 세계에서 그 사랑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악령이 벌일을 다 해도 그 사랑의 능력은 계속됩니다. 셋째,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들, 능력, 높음, 다른 피조물의 위험 속에서도 성부의 사랑은 계속되기에 성부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이깁니다. 그 사랑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 사도가 본 구원세계 (롬9:1-3) 찬 175장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바라본 사도는 이를 모르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첫째, 그는 사랑의 강권 안에 큰 영적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큰 사랑의 구원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고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십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특권과 전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저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자랑하나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 된 그들의 결과는 최대의 비극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 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탄식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셋째, 사도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 비장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며 용서를 구한 모세처럼 간구했고(출 31:32)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간구(눅 24:34)를 닮은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도전에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 바울의 찬양 (롬9:4-5) 찬 138장

동족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함으로 마칩니다. 그는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목적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좌절된 것입니다. 그럼자 속에서만 살다가 버림받은 것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처음된 자가 나중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본 그 세계는 새 이스라엘을 이방인 속에서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룬 연합된 나라 곧 참 교회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 속에서 참 교회를 불러 새로운 언약 백성 곧, 참 아브라함의 자손의 놀라운 구원을 감격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주를 찬양합니다.

목 약속의 자녀 (롬9:6-11) 찬 404장

바울은 구원의 독특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그것은 약속의 자녀에게 일어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6-10) 여기, 아브라함 가족 중, 이스마엘과 구분된 이삭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상징주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네 씨"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으로 설명한 사도는 창 3:15절, "여인의 후손(씨)"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율법을 지키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집니다. 둘째, 그

것은 택함으로 된 구원입니다. (11) 또한 그는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된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행특의의 원리를 거절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것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참 구원은 언제나 자기부인으로 나아옵니다. 셋째, 부르는 분이 이루는 것입니다. (10) 시작의 주가 성취의 주입니다. 참 구원의 앞과 오매가 오직 주님 이시기에 그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에게만 모든 면류관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금 오직 은혜의 구원 (롬9:12-15) 찬 183장

사도의 구원은 그 출처가 절대 은혜임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리브가에게 주신 계시가 증거합니다. (12)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결과는 그들의 기질과 능력과는 무관함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노력 이전,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불공평이 있을 수 없기에 이 일로 그의 의로우심은 더 분명히 드러날 뿐입니다. 둘째, 주님이 먼저 야곱을 사랑하셨음을 증거합니다. (13-14) 또한 그 구원은 야곱이 먼저 사랑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하

셨기에 은혜입니다. 사람은 투자한 것만큼 자랑하기에 처음부터 구원의 시작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두게 하셨습니다. (요일 4:19) 셋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구원임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15) 앞선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리됩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치 않아 하나님을 대적한 자율주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오직 은혜의 구원은 오직 믿음의 구원으로 나옵니다. 불안으로 방황하는 시대에 그 든든한 은혜의 구원 위에 설시다.

토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지혜 (롬9:16-18) 찬 495장

사도가 본 복음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우리의 소원이나 노력을 뛰어넘습니다. (16) 우리의 행위를 이용하실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심으로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게하여 결론에 거하여 항상 참 은혜에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나아가 자신의 비참함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뿌리를 두어 하나님과 연합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16)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원천입니다. 셋째, 주님이 친히 그의 목적

을 이루십니다. (17) 하나님의 목적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신정)를 세우심인데 그의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 예로 애굽의 바를 대적자로 강퍹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은 애굽 땅의 작은 폭군이 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하시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도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기어코 이루실 전능자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지혜로 친히 이루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36)

기뻐 찬양하라

성경 안에는 찬양을 통한 기적의 사건들을 종종 제시합니다. 최초의 회중 찬송으로 기록된 모세와 미리암이 온 백성과 함께 드리는 찬양(출 15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전장(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모두 수장시킨 후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사울을 음악을 통해 치료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삼상 16:23). 사울에게 들어가 있는 악령을 다윗이 수금을 타며 이 악령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찬양을 통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유다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방 족속인 모압, 암몬 자손들을 찬양을 통해 격퇴시키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전체에 걸쳐서 이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전 장 19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개혁시키고 재판제도를 확립하여 종교를 바로 잡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연합군이 침입하게 되어 대단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대하 20:15)임을 알게 하시고 이에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8절) 그리고는 말씀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을 말씀으로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 (21-23)

전쟁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 전투에 임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참 특이합니다. 아무 무기도 소유하지 않은 채 오직 거룩한 옷을 입힌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 그들이 찬양하게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 전투에 임했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오직 그 뒤를 쫓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기적은 암몬 모압 자손이 세일산 거민을 치고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를 격퇴해 모두 패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존하는 미국의 교회음악 작곡가 조셉 마틴(Joseph M. Martin, 1959 -) 이 작곡한 안편 "기뻐 찬양하라 (A call to Joyful Praise)"를 보면 필자는 마치 이 여호사밧 찬양대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서 그들이 찬양하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틴은 두 개의 튜를 합성하여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개신교 찬송가 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히브리 튜입니다.

전반부는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의 찬송 "만유의 하나님"을 대입시켰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유다 백성들이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모든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만유의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를 드러내는 위엄있는 찬양으로 시작하며 그 장면을 연상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하게 합니다.

이 장엄한 찬송가의 가사는 1744년 찰스 웨슬리의 형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책 "Moral and Sacred Poem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1746년 찰스는 그것을 "Our Lord's Resurrection" 찬송가의 16개 선집 중 하나로 출판했습니다. 우리 찬송에는 네 절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여섯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찰스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기 감리교 인들은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고 찰스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감옥에서 쓴 바울의 말을 바탕으로 이 찬송을 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유다 군대를 앞세워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찬양했었던 부분이 나타나집니다. 히브리 전통 음악을 사용하여 경쾌한 리듬의 춤곡으로 느껴지는 이 찬양의 근원(origin)은 히브리 멜로디인 "Yigdal (Magnify O living God)"입니다. 이것을 1770년 영국의 감리교 복음 전도자 Thomas Olivers(1725-1799)가 런던에 있는 회당(Great Synagogue)을 방문하고 난 후 기독교 찬송으로 도입해서 1772년 처음으로 기독교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튜는 히브리 아침 예배의 시작과 저녁 예배의 종결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가사는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 구약의 히브리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배자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이들이 드린 찬양 가사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 영광과 위엄, 그리고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로 나타내어 이것을 깊은 음악적 선율로, 때로는 기쁨의 춤을 추는 듯한 흥겨운 리듬이 가미된 멜로디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 형태를 갖고 모압 암몬 연합군 앞에서 찬양할 때 그들은 좌중우를 서로를 섬멸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드러냅니다. 거기에는 찬양의 본질을 갖고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외에 요소들은 다 수단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찬양 문화를 점검합니다. 예술적 아름다움에 심취되어 가는 "심미주의(Aestheticism)", 비본질적 요소를 둔갑시켜 본질적 요소로 만들고 그것을 바른 주장이라고 고집하는 "불버리즘(Bulberism)",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명목에 내세우지만, 결국 나를 드러내려 하는 "나르시시즘(Narcissism)".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의 예배 찬양자들을 현혹하며 찬양을 점점 더 혼돈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런 현실을 진단하며 회복되어야 할 요소들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타난 찬양을 통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짐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편지

필리핀

1. 예배 시작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필리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희 새희망 학교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부터 토요일 오전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에는 50~60명가량 참석하고 있으며, 청소년부 모임에는 2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하였는데 6학년 무슬림 학생인 리안 학생이 2등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무슬림들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레 예배를 참석하며 찬양을 드리는 리안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학생들 미술 전시

필리핀 학교 수업에는 미술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음악, 체육, 미술을 묶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 음악 시간에는 악기들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미술과 체육을 분리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활용을 이용한 미술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했습니다. 재료는 대나무와 빨대 그 밖의 재활용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보며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3. 폭우가 내림

1월11일에는 새희망 학교에 차를 놔두고 트라이시클을 이용해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산을 넘어 지름길로 학교에 갔을 때는 1시간이 걸렸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서 새희망 학교까지 가다 보면 다리가 12개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통제되었고 다리



하나는 내려앉아 돌고 돌아서 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다리인데 다리가 내려앉았고, 다른 다리 하나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통제가 되다 보니, 다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리를 하나 설치하는데 1~2년이 걸립니다. 비가 많이 내려 흘러가는 물에 다리가 내려앉기까지는 불과 짧은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당황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트라이시클을 새희망 학교에서 산을 넘어 라부안까지는 노란색, 라부안에서 아알라까지는 하얀색, 아알라에서 집까지는 녹색의 트라이시클을 타고 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일반 대중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여 트라이시클 차비를 많이 달라고 말합니다.

4. 구제

1월11일에 큰비가 내려 저희 학교 옆의 림빠빠 다리 옆으로 사는 무슬림들의 집 19채가 강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다른 옆 동네 학생들 집 8채도 물에 잠겨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희망학교에서 큰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던 27가정에게 생필품을 준비하여 나눠 주었고 저희의 작은 도움이 주민들이 고마워하였습니다.

5. 금식

지난 3월2일에 한국의 박 권 사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교헌금으로 학생들에게 금식하였습니다. 스파게티, 닭고기, 주스는 생일 때에야 먹어볼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저희 학교가 13번째 운영이 되었는데 전보다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오전과 오후로 등교한 학생 수를 저에게 보고하는데 어느 날은 유난히도 결석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가고파서 학교까지 걸어올 마음의 여유가 없어 못 오는 경우도 많고, 점심시간에 밥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쳐다보면 힘이 오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돗가에 가서 수돗물을 마음껏 마셔 물로 배를 채우는 일도 있었지만, 저희 학교의 우물 펌프는 물을 마실 수 없고 허드렛일만 할 수 있는 우물 펌프입니다. 보내주신 귀한 헌금으로 학생들 160여 명이 충분히 먹었고, 선생들과 교직원 10명 그리고 학부모 중에 금식 요리부터 전달까지 도와준 학부모 포함 꽤 많은 분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6. 집 지붕 수리

어제는 저희가 사는 집의 지붕 수리를 다 마쳐서 마음이 놓였고 기뻐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최근까지 빗물이 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까 생각도 하였고 고민도 하였는데 이사를 막상 한다고 해도 이렇게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없고, 동네가 안전하지도 않아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일 년에 6개월은 건기이고 나머지 6개월은 우기입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에 우기철 마

다 제가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수리하였는데 50년 이상 된 나무집이라 낡을 대로 많이 낡았고, 나무 마룻바닥과 벽에는 하얀 개미가 나무를 갉아 먹으면 또 수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목수를 불러 비가 어디서 새는지 지붕을 점검하였는데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비가 내리면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거실에는 빗물 전용 대야를 늘 받치고 살아왔습니다. 집세를 20년 전 그대로 받고 있고 현직인 교회 장로님이고 저희 학교 교문 변호사인데 돈이 없어 집을 수리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큰마음을 먹고 저희 돈으로 지붕을 먼저 고치고 2년 동안 집세를 내지 않기로 약속하고 지붕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

1. 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2. 새희망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학교, 중등부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3. 선생을 구해야 하는데 좋은 선생들을 찾을 수 있도록
 4. 현타이와 준타이가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5. 농구장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적도의 날씨가 너무 뜨거워 체육 수업과 행사할 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정운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남부투캉베시 종족

▲ 인구 130,000명

▲ 종족의 종교 상황 이슬람교 90%, 민속 종교 5%, 복음화율 5%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필

와카도비섬에서 온 어부지만 발농사도 짓는다. 금속으로 배를 만들기에 철의 일꾼이라 불린다. 해양 관광 산업이 발전했다. 면과 실크를 짜서 판매하며, 칼레두파섬은 부드러운 섬유로 유명하다. 무슬림이지만 초자연적인 힘을 믿으며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려고 한다.

▲ 기도제목

1. 남부 투캉 베시 종족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2. 남부 투캉 베시 종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1차 세미나

일시: 7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203 LA CA 90006
후원: 재미한국노인회

날짜	주제	강사
7/7(Fri)	자살 Suicide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7/14(Fri)	정신 분열증 Schizophrenia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7/21(Fri)	성격 장애 Personality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7/28(Fri)	수면장애 Sleep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8/4(Fri)	낙인 Stigma	양 에스더 박사 미주 정신 가정상담학 교수
8/11 (Fri)	섭식장애 Eating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워크샵 참석 베네핏

-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네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3388 W. 8th St. #103 LA CA 90005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TGC, 이슬람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다?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새로운 개종자가 아니라 무슬림 가정의 높은 출생률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한두 번 들어 보았을 것이다. 현재 추세면 2050년이면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 인구와 거의 같아질 것이라고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예측한다.

누군가에게 이 통계가 주는 의미는 이슬람이 매년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고 따라서 신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석 앞에서 낙담하는 그리스도인도 생길 수 있다. 특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던 사람이 신앙을 버린 통계와 비교할 때 더 실망스럽다.

이처럼 기독교가 쇠퇴하는 사이에 이슬람이 그 틈을 타고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통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슬람이 아니던 사람이 개종해서 증가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통계에는 신앙을 떠나는 무슬림이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현실 이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새로운 개종자가 아니라 무슬림 가정의 높은 출생률 때문이다. 무슬림 남성은 최대 네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많은 자녀로 이어진다. 또한 많은 무슬림 집단에선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자가 집에만 있는 가정환경은 자연스럽게 평균적인 비무슬림 가족보다 더 많은 자녀의 출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슬람 사회가 여성을 주로

출산 기계(child bearers) 정도로 볼 정도로 그들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부 무슬림이 있을 정도이다. 전통적인 무슬림에게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을 무함마드의 음마(공동체) 확장이라는 사명을 성취하는, 무함마드를 향한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통계 읽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적지 않은 연구를 통해 무슬림들 사이에 만연한 배교의 물결이 드러났

장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이란의 무슬림을 살펴보자. 2020년 9월, 이란의 세속적 변화를 조사한 학술연구 결과가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기재되었다. 수많은 이란인이 이슬람을 버리고 있다. 이란

운 세대의 무슬림의 모습을 강조했다. 기사는 불신앙(unbelief)의 위기에 처한 젊은 무슬림이 이슬람을 버리는 물결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서구 자유주의 사회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심지어 수단, 이란, 파키스탄 같은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배교 금지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럼 아랍 세계의 무슬림은 어떻게? 2019년 6월 24일, 영국 뉴스 매체 가디언(The Guardian)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기반을 둔 한 리서치 그룹이 수행한 연구를 보도했다. 그 연구는 아랍의 무슬림들이 어떻게 종교를 버리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아랍은 말 그대로 이슬람의 심장부이다. 대략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자신을 “비종교적”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11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증가했다. 2015년 4월,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의 기사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 아랍 세계에서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종교를 포함해서 특히 이슬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5년 사이에 고작 7퍼센트 증가하는 정도를 주요 지표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신성한 텍스트, 꾸란을 가르치고 그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이슬람의 본거지인 아랍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 숫자가 반영하는 것은 비종교적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에 국한해서이다.



현신의 표시가 된다.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무슬림으로 간주되고 자동으로 이슬람의 전체 숫자에 추가된다.

출생으로 신자 수를 늘리는 동시에 이슬람은 배교자를 사형시킨다. 따라서 이슬람을 포기하는 사람은 드물 수밖에 없다.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목상 “무슬림”으로 남는 배교자도 있다. 이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는 말 앞에서 실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런 현실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 증가하는 무슬림의 수가 반드시 이슬람이

다. 2017년 퓨 리서치 센터 연구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슬람과 관련해서 개종한 사람과 배교한 사람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신도수의 순 증가치(net gain)는 사실상 0인 셈이다. 미국에서 자란 성인 무슬림 중 거의 4분의 1이 자신을 더 이상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연구자는 주의를 기울인다. 내가 이런 통계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슬람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놀리고 싶어서가 아니다. 단지 이슬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는 주

의 공식 인구 조사에 따르면 무려 인구의 99.5퍼센트가 무슬림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건 고작 40퍼센트에 불과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란은 더 이상 무슬림이 다수인 이슬람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

전 세계 무슬림은 어떻게? 2019년 9월 텔레그래프 온라인(The Telegraph Online)에 실린 “젊은 무슬림이 이슬람을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슬람의 근본적인 주장에 대해 감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육받은 새로

진심을 드러내는 것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나라에서 위협한 행동이다. 따라서 실제 숫자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이터가 이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다. 배교할 경우 사형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을 버릴 준비가 된 무슬림이 천지에 깔렸다.

기독교의 반응

확실히, 무종교자(nones)의 부상은 서구만의 현상이 아니다. 불신앙과 비종교의 증가는 이슬람에게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계적인 현상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무슬림들 사이에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우리 중에는 이슬람 국가를 포함하여 지구 끝까지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무슬림 이웃을 가진 사람도 있다. 성령께서 무슬림 가운데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지금이야말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선포할 적기이다.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 우리는 힘을 내야 한다.

주로 세속 매체에 기재된 지금까지의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에 찬성하여 이슬람을 포기하는 무슬림이다. 그러나 전 세계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사역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이 속속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과 달리 예수의 복음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까지 있음을 증언한다. 더 힘을 내어 무슬림에게로 나아가자.

베드로 진서 2



김경민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생 때부터 커피를 마셨던 것 같다. 솔직히 커피 맛도 모르면서, 한국에선 지금도 유명하고 이제 한국의 커피 맛이리라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믹스 커피의 그 맛에 취해 친구들과 만나 다방에

갔다 하면 한 잔씩 마셨다. 그냥 믹스 커피 그 맛 그대로 프림을 많이 넣어 고소하고 설탕도 퐁퐁 넣어 달콤한 그 맛을 즐겼다고 하겠다. 실제로 씹쓸한 그 커피 맛이 아닌 데도 말이다. 이래저래 커피를 좋아한다

고 했더니 결혼하는 아내가 신선살림에 커피 팻을 준비해서 왔다. 그러니 믹스 커피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달콤한 커피 고소한 커피 맛이 커피의 맛이냐 생각하고 열심히 마셨다. 지금 생각해도 그 맛은 아직 내 기억 속에 있

다. 그래서 몇 달 만에 한 번 정도는 누가 준 믹스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 지금은 블랙 커피다. 은퇴하고 나서 커피 맛을 본격적으로 알았다 할까? 아내는 커피에 밀크를 타서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그냥 블랙이다.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커피를 마시겠구나 하는 기대, 새벽기도회 다녀오면서 커피를 마시겠구나 하는 기대.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커피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음을 입에 적셔 맛을 느끼게 미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revpeterk@hot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탕부 하나님 팀 켈러 두란노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최안 케고르, 오석환 역주 커리스 아카데미	묵상과 기도 김경은 성서유니온	인생을 묻는 딸에게, 아버가 정한옥 깊은 문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손성찬 두란노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아들 하재성 생명의 말씀사

회원사

남북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찬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